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기간: 2005. 10.3 - 10.21

장소: 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보고서를 내며

에펠탑이 높게 보이는 3각 날개 모양의 파리 본부 건물 안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는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규모가 큰 전세계적인 행사입니다. 20일 가까이 계속되는 총회는 향후 2년 내지 6년동안 유네스코가 해야 할 일들과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총회는 190여개 회원국들이 '평화와 발전'이라는 유네스코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자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을 실천·모색하는 치열한 외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올해 10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 동안 개최된 제33차 총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네스코 창설 60주년에 열린 이번 총회에는 188개 정회원국 대표단 3,203명을 비롯해 4개 준회원국, 2개 비회원국 옵저버등 총 3,700명이 참가해 유네스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총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진표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38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해 본회의와 6개 분과위원회 회의는 물론 각종 공식·비공식회의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총회는 2006-2007 정규예산을 6억 1,000불로 2004-2005 회기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마쓰우라 사무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년과 달리 분야별 우선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예산 2,500만 불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예산 배분을 규모 순으로 보면, 교육 사업에 전체 정규예산의 17.5%에 해당하는 1억700만 불, 자연과학 사업에 5,600만 불, 문화 사업에 5,000만 불,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3,300만 불, 인문사회과학 사업에 3,100만 불을 배정하면서 '모든 이를 위한 기초교육' '물과 관련 생태계 보존' '과학기술윤리' '인도양의 쓰나미 조기경보체계' '문화다양성 증진' '정보 및 지식의 접근성 증진' 등의 사업을 분야별 중점사업으로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는 3개의 중요한 국제규범을 제정함으로써 국제기구로서의 유네스코의 중요성을 드높인 회의였습니다. 「문화다양성 협약」을 최종 채택함으로써 문화다양성과 문화주권,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 등을 둘러싼 수년간에 걸친 각국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루었으며,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채택으로 스포츠 분야 도핑 추방을 위한 전 세계적인 공조·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채택 역시 오늘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연구에 지침이 될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단은 총회의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의 정부간 위원회 이사국 선거에서는 국제교육국(IBE) 등 4개 위원회 이사국에 새로이 선출됨으로써 향후 이들 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펼칠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진출한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 선거의 경우는 지리적 배분이 없는 선거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예견되었습니다만, 기대 이상으로 캐나다(103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표(101표)로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문화적 역량의 성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표단의 중심축을 이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의 활동도 예년에 비해 커진 규모만큼이나 내실이 있었다고 자평하고자 합니다. 역대 어느 총회보다도 많은 위원들이 참석 (위원장 및 사무총장 제외하고 8인)한 것은 물론이고 참석한 위원들이 사무처와 협력하여 각 분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은 과거 다른 총회에서는 보기 드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처 역시 총회 의제 분석 등을 포함한 많은 준비를 통해 총회장에서 한국대표단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제33차 총회를 돌아보며 2년 후 차기 총회를 좀더 효과적으로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는 제33차 총회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제34차 총회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으나,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및 기타 유네스코 활동 관계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의 구성과 현지에서의 활동을 위해 애쓰신 교육인적자원부 및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유네스코와 저희 한국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이 삼 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목 차

보고서를 내며

I. 회의 개요

가. 기 간	1
나. 장 소	1
다. 참가범위	1
라. 의 제	1
마. 회의구성 및 내용	4

II. 본회의

가. 개회	7
나. 주요국 정상 발언요지	9
다. 일반정책 토론	13

III. 분과회의

가. 제1분과위원회 (일반 및 프로그램 지원)	19
나. 제2분과위원회 (교육)	24
다. 제3분과위원회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27
라. 제4분과위원회 (문화)	31
마. 제5분과위원회 (커뮤니케이션)	35
바. 행정분과위원회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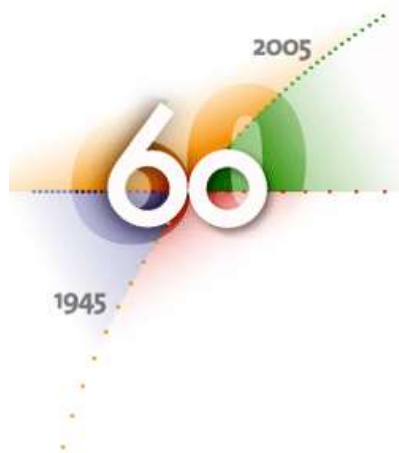
IV. 주요 결의 내용

가. 사업 및 예산 채택	41
나. 집행이사국 및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선출	42
다. 주요 규범 제정	50
라. 마쓰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 재선	50

V. 특별회의

가. 유네스코 청소년포럼	51
나. 교육장관 원탁회의	51
다. 과학장관 원탁회의	52
라.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회의	53
마.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비공식 지역회의 (아태지역)	53

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정부간 과학사업 국내위원회 간의 협력에 대한 비공식 라운드테이블	53
사.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ESD) 관련 토론회	54
아. 교육차별 금지 협약의 이행과 보고서 준비에 관한 비공식 정보회의	54
VI. 한국대표단 활동	
가. 한국대표단 명단	55
나. 한국대표단 주요활동	56
VII. 한국대표단 발언문	
가.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65
나. 제1분과 발언문	68
다. 제2분과 발언문	72
라. 제3분과 발언문	76
마. 제4분과 발언문	81
바. 제5분과 발언문	88
사. 행정분과 발언문	91
아.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ESD) 관련 토론회 발언문	93
자. 유네스코 청소년포럼 발언문	98
VIII. 참고자료	
가. 북한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99
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북.일 공방	104
IX. 한국대표단 사진자료	106



I. 회의 개요

가. 기 간: 2005년 10월 3일(월) - 21일 (금), 19일간

나. 장 소: 유네스코본부 (프랑스 파리)

다. 참가범위

- 1) 191개 정회원국
- 2) 6개 준회원국 (아루바, 영령 버진군도, 케이만 군도, 마카오, 네덜란드 안틸레스, 토켈로)
- 3)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 대표
- 4) 비회원국 (싱가폴 등) 및 국제기구 옵서버 등

라. 의 제: 14개 영역 97개 항목

- 1) 총회의 구성 및 진행방법에 관한 영역
 - 1.1. 개회
 - 1.2. 신임장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의 총회 보고
 - 1.3. 유네스코헌장 4조C항 Para8(c)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회원국들과의 의견 교환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4. 의제 채택
 - 1.5. 의장단 선출
 - 1.6. 금차 총회 업무구성
 - 1.7. NGO 옵저버의 총회 참가
- 2) 유네스코 활동 및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영역
 - 2.1. 2002-2003 기구 활동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2.2. 2004-2005 활동에 관한 집행이사회 보고
- 3)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준비에 관한 영역
 - 3.1.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준비
 - 3.2. 2008-2013 중기전략 준비
- 4) 2006-2007 사업 및 예산안에 관한 영역
 - 4.1. 2006-2007 예산안 준비방법
 - 4.2. 2006-2007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4.3. 2006-2007 세출결의안 채택
 - 4.5. 2006-2007 예산 상한선 채택
- 5) 일반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영역
 - 5.1. 2006-2007 유네스코가 연계될 수 있는 기념행사
 - 5.2. 예루살렘과 32C/결의 이행

- 5.3. 아랍 점령지역내 교육 문화기구에 관한 32C결의 이행
- 5.4. 세계적 의식과 민족간 대화 윤리의 해 기념
- 5.5. 종교적 상징 및 표현의 오용
- 5.6. 세계적 쓰나미 경고체계 설립을 위한 전략
- 5.7. 정보화 사회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 정상회의
- 5.8.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적 보장관련 지침(안) 마련을 위한 UNESCO
- OECD 협력
- 5.9. 생명공학 훈련과 교육을 위한 지역센터 설립 (인도소재)
- 5.10. 국제 물 위험요소 및 위기관리 센터 (ICHARM)' 설립 (일본 소재)
- 5.11. 세계 철학의 날 선언
- 5.12. 불법 반출.입 문화재 반환 활성화를 위한 전략
- 5.13. 2차 세계대전 중 이전된 문화재 반환 원칙
- 5.14. 2007년 유엔 국제 지구의 해 선언
- 5.15. 2007년 몬테레이 문화포럼
- 5.16. IHP-HELP, 물 관련 법, 정책, 과학 센터 설립 (영국 소재)
- 5.17. 미디어 와 Good Governance에 대한 선언
- 5.18.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 : 평가 및 향후 전망
- 5.19. 제2차 세계 정보기술포럼 2005
- 5.20. 도시 물 관리를 위한 지역센터 설립 제안
- 5.21. 유네스코의 미래에 대한 성찰
- 5.22. South-South 문화 포럼
- 5.23. 전통적 놀이 및 스포츠관련 국제현장의 필요성 및 적용범위에 대한 보고
- 5.24. 아프리카 여성교육을 위한 국제센터 설립제안
- 5.25. 베네수엘라에서의 유네스코 우수센터 설립 가능성 조사
- 5.26. 브라질 IMPA 대상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지역센터' 자격 부여 타당성 조사
- 5.27. 생태수문학 유럽 지역센터 설립제안
- 5.28. 과학윤리에 대한 국제선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5.29. ARTEK, 국제 청소년 및 아동센터 설립제안
- 5.30. 2009년 세계 천문학의해 선포
- 5.3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센터 설립제안 (페루 소재)
- 5.32. 라틴아메리카 및 캐러비안 사막화지역을 위한 지역 물센터 설립제안
- 5.33. 동영상 자료보호를 위한 권고 채택 및 세계 시청각문화재의 날 선포 25
주년 기념
- 5.34. 31차 ITI 세계 총회
- 5.35. 기니비사우와의 협력 강화
- 5.36. 겸상 적혈구성 빈혈, 공중보건 우선사업

- 6) 유네스코 조직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영역
 - 6.1. 유네스코 3대 기구 간 관계에 대한 임시작업단 보고
 - 6.2. 집행이사국 선거를 위한 회원국 그룹의 재분류
 - 6.3. 유네스코 기관 및 센터(Category I) 와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기관 및 센터(Category II)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및 지침
 - 6.4. 지역사업 이행과 관련한 지역의 정의
 - 6.5. 집행이사회 규모
 - 6.6. 유네스코 내에서의 언어사용
- 7) 헌장 및 법률에 관한 영역
 - 7.1. 유네스코가 채택한 선언의 채택 절차에 관한 법률적 검토
- 8) 협약, 권고 및 기타 국제 규범에 관한 영역
 - * 새로운 규범의 준비 및 채택
 - 8.1. 스포츠 반 도핑 국제협약
 - 8.2. 생명윤리 보편규범 선언
 - 8.3.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 초안 및 이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 기존의 국제규범 이행
 - 8.4. 사이버 공간의 사용언어 다양화 및 보편적 접근 증진에 관한 권고 이행에 대한 보고체계 설립
 - 8.5. 유네스코 국제협약에 대한 종합보고 준비
- 9) 회원국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
 - 9.1.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 요청
 - 9.2. 유네스코 로고 및 이름의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10) 행정 및 재정업무에 관한 영역
 - 10.1. 조직개혁 이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0.2. 2003년 12월 31로 끝나는 회계기간에 대한 유네스코 재정보고
 - 10.3. 200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기간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보고
 - 10.4. 지출기록의 근대화
 - 10.5.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 10.6. 회원국 분담금 모금
 - 10.7. 운영기금: 기금 현황 및 관리
 - 10.8. 인사규정 및 규칙
 - 10.9. 직원 보수, 수당, 혜택
 - 10.10. 직원 의 지리적 배분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0.11. 유엔 공동 직원연금기금 및 유네스코 직원연금 위원회
 - 10.12. 의료혜택기금 및 동 기금의 2006-2007 관리위원회 대표 임명

11) 사무총장 선출에 관한 영역

11.1. 사무총장 선출

12) 선거에 관한 영역

12.1.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거

12.2. 제34차 총회 법률위원회 선거

12.3. 본부위원회 위원 선거

12.4. 외부 회계감사관 선거

12.5. 교육차별금지협약 분쟁조정위원회 선거

12.6.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IBE) 이사회 선거

12.7. 만인을 위한 정보 사업 정부간 위원회 (IFAP) 선거

12.8. 국제 인간과 생물권 계획 (MAB) 조정위원회 선거

12.9. 국제 수리학 사업 (IHP) 정부간위원회 선거

12.10. 불법소유 문화재 반환촉진위원회 (ICPRCP) 선거

12.11. 누비아 박물관 및 이집트 국립문명박물관 설립을 위한 국제캠페인 집행위원회 선거

12.12. 국제 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 위원회 (IPDC) 선거

12.13. 사회적 전환 관리 사업 (MOST) 정부간위원회 선거

12.14. 정부간 생명윤리 위원회 (IGBC) 선거

12.15. 체육교육 및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CIGEPS) 선거

12.16.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IS) 이사회 선거

13) 34차 총회에 관한 영역

13.1. 제34차 총회 장소

14) 기타

14.1. 수단과의 협력 강화

14.2. 소말리아와의 협력 강화

마. 회의구성 및 내용

1) 본회의

a. 1차 본회의 (10월3일 오전) / 개회, 신임장위원회 구성, 의제 채택

b. 2차 본회의 (10월3일 오후)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분과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구성, 팔레스타인 유네스코 가입 요청, 국제NGO 옵저버의 총회 참가, 신임장위원회 보고

c. 3차 본회의 (10월4일 오전 - 10월5일 오전) / 일반정책토론

(10월6일 오전 - 10월11일 오후) / 일반정책토론

(10월12일 오전) / 사무총장 답변

(10월19일 오전 - 10월21일 오후) 청소년 포럼 결과 보고서 채택

분과위 보고서 채택 / 2006 - 2007 사업 및 예산(안) 채택, 34차 총회 장소 결정

2) 6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기간	비고
Commission I 일반 문제 및 프로그램 지원	10월11일 오전 - 10월17일 오후	보고서제출 10월19일 오후
Commission II 교육	10월4일 오전 - 10월10일 오후	보고서제출 10월14일 오전
Commission III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10월7일 오전 - 10월12일 오후	보고서제출 10월14일 오후
Commission IV 문화	10월13일 오전 - 10월18일 오전	보고서제출 10월20일 오전
Commission V 커뮤니케이션	10월11일 오전 - 10월13일 오후	보고서제출 10월17일 오전
Administrative Commission 행정	10월4일 오전 - 10월10일 오후	보고서제출 10월12일 오후

3) 총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기간	비고
Credentials Committee 신임장위원회	10월3일 오전 - 10월4일 오후	1차 본회의에서 9개 회원국이 위원으로 선출되어 위원회 구성
Nominations Committee 지명위원회	10월3일 오전, 10월4일 오후, 10월 6일 오후, 10월12일 오전, 10월13 일 오전, 10월14일 오후, 10월18일 오전 및 오후	모든 수석대표들로 구성
Legal Committee 법률위원회	10월4일 오전 - 10월7일 오전	32차 총회에서 선출된 21개 회원국으로 구성

4) 본부청사위원회 (Headquarters Committee):

본부청사 유지 및 보수관련 문제

5) 특별회의

a. 유네스코 청소년포럼

- 기간 : 9월30일 - 10월2일

- 장소 : Room II

b. 교육장관 원탁회의 "Education for All"

- 기간 : 10월7일 09:30 - 10월8일 18:00

- 장소 : Room X

c. 과학장관 원탁회의 "Basic Science"

- 기간 : 10월13일 10:00 - 10월14일 18:00

- 장소 : Room X

- d.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회의
 - 일시 : 10월4일 07:30 - 09:00
 - 장소 : Room XII
- e.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비공식 지역회의 (아태지역)
 - 일시 : 10월8일 10:00 - 13:00
 - 장소 : Room IX
- f.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정부간 과학사업 국내위원회 간의 협력에 대한 비공식 라운드테이블
 - 일시 : 10월7일 13:00 - 14:30
 - 장소 : Room IX
- g.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ESD) 관련 토론회
 - 일시 : 10월6일 13:00 - 14:00
 - 장소 : Room II
- h. EFA / Prior Learning & Experience의 인정, 확인 및 인가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 일시 : 10월6일 13:00 - 14:30
 - 장소 : Room 4042
- i. 교육차별 금지 협약의 이행과 보고서 준비에 관한 비공식 정보회의
 - 일시 : 10월13일 10:0 - 19:00
 - 장소 : Room VI
- j. 유네스코 창립 60주년 기념식
 - 일시 : 10월 5일 15:00
 - 장소 : Room I
- k. 제15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 일시 : 10월10일 10:00 - 10월11일 18:00
 - 장소 : Room IV



II. 본회의

가. 개회

1) 의제 1.1 제33차 유네스코 총회개막

총회절차규정 28조에 의거 전차 총회의 의장인 Mr. Michael Abiola Omolewa(나이지리아)는 임시의장이 되어 2005년 10월3일 (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의 개회를 선포함. 전임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집행이사회 의장인 Mr. Hans-Heinrich Wrede (독일)와 Mr Koïchiro Matsuura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연설이 있었음.

2) 의제 1.2. 신임장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의 총회 보고

총회절차규정 32조에 의거 임시 총회 의장인 Mr. Michael Abiola Omolewa 는 신임장위원회 구성을 위해 다음 9개국을 추천하였고 총회는 이를 승인함: 벨기에, 엘살바도르, 하이티, 라오스, 리투아니아, 카타르, 세네갈,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남아프리카.

3) 유네스코 청소년포럼 결과 보고

이번 총회에 앞서 9월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4차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에는 128개국 184명의 청소년 대표들과 45명의 참관자 등 총 229명이 참석하여 ‘문명, 문화, 민족간 대화 및 청소년’을 주제로 토론함. 청소년 포럼의 의장으로 선출된 Mr. Clement Mwangi (케냐)는 포럼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청소년 포럼에 보다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길 희망함. 아울러 청소년 포럼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및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함.

4) 의제 1.4. 의제 채택

집행이사회 의장 Mr. Hans-Heinrich Wrede는 172차 집행이사회에서 준비된 81개 잠정의제를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이를 채택함. / 아울러 10월4일 본회의 세 번째 회의에서 14개의 새로운 의제가 추가로 채택됨. (본회의 열네 번째 회의에서 2개의 새로운 의제가 추가로 채택됨).

5) 의제 1.5. 의장단 선출

제33차 총회 의장으로 오만의 Mr. Musa Bin Jaafar Bin Hassan 유네스코 상주대표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는 각 지역그룹별 6개국씩 총 36개국이 임명됨. 특히 한국은 이번 의장단 선출에서 부의장국에 선출됨.

- 의 장: Mr. Musa Bin Jaafar Bin Hassan (오만)
- 부의장: 36개국
 - a. I 그룹: 프랑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페인, 미국, 네델란드
 - b. II 그룹: 폴란드, 보스니아, 루마니아, 크로아시아, 리투아니아, 체코
 - c. III 그룹: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 d. IV 그룹: 호주, 필리핀,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네팔

- e. V 그룹 (a): 가봉, 가나, 세네갈,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코모로스
- f. V 그룹 (b): 요르단, 쿠웨이트, 시리아, 예멘, 이집트, 튀니지

한편, 총회 의장은 각 분과위원회 의장을 다음과 같이 선출함.

- 1분과: Ms B. Mukherjee (인도)
- 2분과: Ms G.B. Andersson (스웨덴)
- 3분과: Mr J. Oszlanyi (슬로바키아)
- 4분과: Mr J. Nualart (멕시코)
- 5분과: Mr M. Sheya (탄자니아)
- 행정분과: Mr M. Bedjaoui (알제리아)
- 지명위원회 : Ms S. Campbell (자마이카)
- 법률위원회 : Mr P.M. Eisemann (프랑스)
- 신임장위원회 : Mr D. Najman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6) 의제 9.1.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 요청

172차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차기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가입문제가 회의적으로 고려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됨.

7) 의제 1.7. NGO 옵저버의 총회 참가

유네스코와 이미 관계를 유지해온 비정부기구와 기타 비정부기구 옵저버의 제 33차 총회 참여에 관해 총회는 집행이사회 권고대로 해당 비정부기구에 옵저버 자격을 부여함.

8) 의제 1.6. 금차 총회 업무구성

총회는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본회의 및 분과회의 등 제33차 총회의 업무 구성 방법을 정하는 한편 일반정책토론 의 국가별 발언순서를 총회에 알림.

9) 의제 2.1. 2002-2003 기간 기구 활동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사무총장은 ‘모두를 위한 기초교육사업’, HIV/AIDS 예방 교육사업,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사업’, ‘수자원 및 생태계사업’, ‘생명윤리 관련사업’,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 간 대화 사업’,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반 테러리즘 관련사업’ 등 유네스코가 실시한 다양한 사업 내용들을 총회에 보고함.

10) 의제 2.2. 2004-2005 기간 활동에 관한 집행이사회 보고

집행이사회 의장인 Mr. Hans-Heinrich Wrede (독일)은 2004-2005년도 집행이사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총회에 보고함.

나. 주요국 정상 발언요지

금차 총회 기간 중에는 스리랑카, 가나, 독일,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타지키스탄, 태국, 포르투갈 등 8개국 정상이 유네스코를 방문하여 유네스코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인류 평화건설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함.

1) 스리랑카 (Ms. Chandrika Bandaranaike Kumaratunga, 대통령)

찬드라카 반다라나이케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10월 3일 연설을 통해 유네스코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면서 그 동안 유네스코가 인류의 기본적 가치 보급 및 지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를 치하함.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인간 상호간의 이해 증진 및 인류의 발전에 있어 교육이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새천년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성 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함. 아울러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와 증진 협약’을 지지하며 금차 총회에서 동 협약이 채택되길 희망함.

2) 가나 (Mr. John Agyekum Kufuor, 대통령)

존 아게쿰 쿠푸르 대통령은 지난 유네스코가 지난 60년간 교육, 과학, 문화 분야 사업 등을 통해 인류 평화건설에 기여한 바를 치하하는 한편, 빈곤, 문맹, 무지, 굶주림, 질병, 테러리즘 등 세계가 오늘날까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쿠푸르 대통령은 이러한 유네스코의 노력에 가나도 적극 동참할 것임을 다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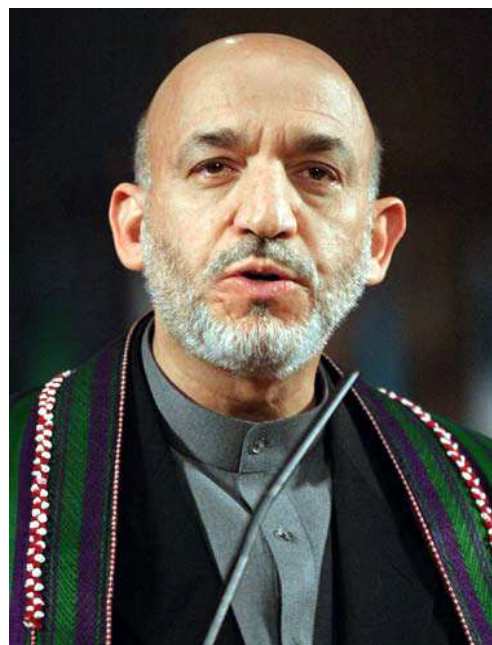
3) 독일 (Mr. Horst Köhler, 대통령)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10월 5일 거행된 유네스코 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학살을 통해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다양성을 상기 하면서 유엔과 유네스코의 존재 이유가 이 같은 불행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쾰러 대통령은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 국제질서의 가장 근본적 원칙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류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두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빈곤과 싸워야하고, 다양성을 보호해야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함. 쾰러 대통령은 또한 문화가 개인의 내적 자신감 및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함.



4) 아프가니스탄 (Mr. Hamid Karzai, 대통령)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과 함께 유네스코 6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유네스코가 지난 60년간 인류의 평화건설을 위해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공헌한 바를 치하함. 한편, 카르자이 대통령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 질병, 빈곤, 전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키고 특히 지난 수십년간 전쟁의 참화를 경험해온 아프카니스탄을 예로 들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세계평화 건설을 위해 유네스코가 더욱 노력해줄 것을 촉구함.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Mr. Ivo Miro Jovic, 대통령)

10월 10일 유네스코를 방문한 이보 미로 조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타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 갈등의 원인을 주장하며 다른 문화 및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한 자세가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함. 한편, 조빅 대통령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와 증진 협약’이 문화적 획일화로부터 약소국들이 자국의 문화, 언어, 전통 및 역사적 유산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 협약을 지지함.

6) 타지키스탄 (Mr. Emomali Rakhmonov, 대통령)

조빅 대통령에 이어 에모말리 라흐모노브 대통령 또한 문명 간 갈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종교 간 대화가 보다 촉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이슬람과 같은 특정 종교를 테러리즘 혹은 급진주의와 결부시켜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이들 종교의 정신이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7) 태국 (Mr. Thaksin Shinawatra, 수상)

10월 11일 유네스코를 방문한 탁신 태국 수상은 연설을 통해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함. 빠른 속도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인간이 빈곤을 극복하고 운택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 제공임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서로가 조화롭게 살며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류 평화 및 관용,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함.



8) 포르투갈 (Mr. Jorge Sampaio,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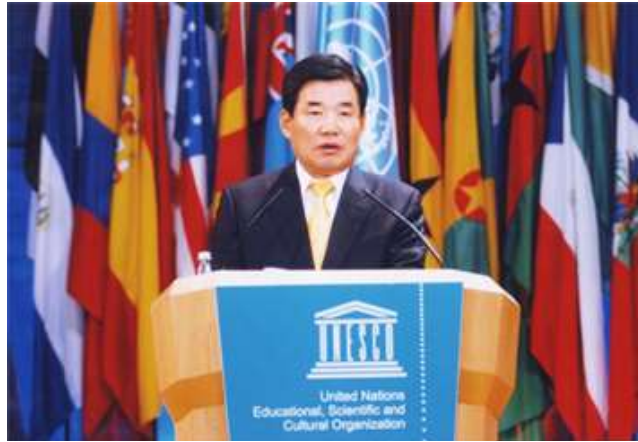
포르투갈의 조르지 삼파이오 대통령은 양질의 교육을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사회만이 효과적인 발전, 자원의 효율적 활용, 원활한 정보의 공유 및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의 보호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하면서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아울러 삼파이오 대통령은 인권교육 강화가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인류화합과 상호이해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삼파이오 대통령은 또한 각각의 문명, 종교, 문화가 각자의 영역 안에서 관용, 사상의 자유 및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일반정책 토론

1) 한국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의 이틀째인 4일 오후에 첫 번째로 연설한 김진표 수석대표는 지난 6년간 유네스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온 마쓰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함. 김 부총리는 세종대왕문해상 제정과 저개발국



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EFA)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제공 등 한국의 유네스코 교육지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이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유네스코 사이버 대학 설립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또한 김 부총리는 민족, 국가간 갈등 해소에 과거 역사의 교훈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네스코가 회원국 공동 역사교과서 개정 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함. 한편,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인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문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협약안이 이번 회기에 회원국들의 전체합의에 의해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한국의 입장을 표명함. 끝으로 김 부총리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회원국간 정보 및 정책경험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대표연설을 마침.

2) 프랑스 (Mr. Donnedieu de Vabres,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모든 문화가 평등하며 각각의 개별 문화가 모여 세계의 문화를 구성한다는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문화 간, 국가 간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은 바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와 증진 협약'을 적극 지지함.

3) 영국 (Baroness Valerie Amos, 상원의원장)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발언한 영국의 발레리 아모스 수석대표는 연설을 통해 유네스코와 같은 다자간 기구의 두 가지 핵심적 역할로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 및 규범 마련'과 '국가 단위에서 관련 기관들과의 연대강화'를 제시함. 아모스 수석대표는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마쓰우라 현 사무총장을 지지하며 향후 4년 동안 보다 효과적인 조직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한편 집행이사회과 권고한 대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와 증진 협약'이 제33차 총회에서 채택되길 희망함.

4) 호주 (Mr. Rod Kemp, 예술 및 스포츠부 장관)

호주의 로드 캠프 수석대표는 유네스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조직의 목표, 사업 및 조직의 방향성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한편 호주는 이번 총회에 상정된 국제규범들과 관련하여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및 ‘생명윤리 보편선언’ 등은 적극 지지하였으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과 관련해서는 동 협약이 기존의 국제협약들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회원국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 채택되길 희망하면서 금차 총회에 상정된 동 협약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함.

5) 미국 (Hon. Margaret Spellings, 교육부장관)

스펠링 미국 수석대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과 관련하여 동 협약이 생각과 지식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협하고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약화시키는데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함. 스펠링 수석대표는 회원국 모두가 합의하에 공동의 노력을 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회원국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협약마련을 위해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를 희망함. 한편 미국 수석대표는 문해와 교육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지적하면서 유네스코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천년 발전목표가 정한 2015년까지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 기초교육기회 제공’ 및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의 달성을 위해 교육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함.

6) 중국 (Mr Ji Zhou, 교육장관)

중국 수석대표는 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긴밀한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유네스코 회원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과학 및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조화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 인류문명 간의 대화 및 교류가 보다 촉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중국 수석대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지지하면서 동 협약이 제33차 총회에서 채택되길 희망함. 끝으로 그는 중국 정부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제정한 공자 문해상을 홍보하며 2006년도에 첫 번째 시상식을 가질 계획임을 알림.

7) 스웨덴 (Mr. Leif Pagrotsky, 교육, 연구 및 문화부 장관)

파그룻스키 스웨덴 수석대표는 먼저 2006-2007년도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33C/5)의 형식과 관련하여 현재의 C/5 문서가 불필요하게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C/5문서는 보다 간단

명료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책문서로 준비해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그는 총회 및 집행이사회가 각각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길 희망함. 한편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이 조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장치임을 강조하며 유네스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길 희망함. 끝으로 스웨덴은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며 동 협약들이 제33차 총회에서 채택되길 희망함.

8) 스페인 (Ms. Dona Carmen Calvo Poyato, 문화부 장관)

스페인의 포야토 수석대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수용은 평화공존의 기초임을 강조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 세계 각국의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양질의 교육은 모든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인 동시에 빈곤퇴치의 중요한 수단인 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 기초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새천년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함.

9) 독일 (Mr. Georg Boomgaarden, 독일연방외교장관)

독일의 붐가르덴 수석대표는 먼저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발언한 영국의 아모스 수석대표의 연설내용을 지지하는 한편 유네스코가 정치적 지침, 모델 사업, 국제규범 등을 논하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줄 것을 요청함. 또한 그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주의 안에서 발견되는 풍요로움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가 보다 노력해야하며 유네스코의 이상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하고 유네스코 사업기획 및 이행과정에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독일의 붐가르덴 수석대표는 유네스코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세 가지 주제로, 첫째,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 재난 예방사업 및 규범재정 업무를 언급하였는바, 특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생명윤리 보편선언’등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 규범이 제33차 총회에서 채택되길 희망함.

10) 일본 (Mr. Nariaki Nakayama, 문부과학성 장관)

일본의 나카야마 수석대표는 유네스코가 창설된 지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리즘이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인류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과 문화 다양성을 반드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함.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유네스코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함. 일본의 나카야마 수석대표는 또한 쓰나미 경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유네스코

의 노력을 치하하며 일본이 이러한 유네스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힘. 특히 일본은 국제 수해 및 위기관리센터 설립을 통해 재난방지 활동에 기여하길 희망함. 끝으로 일본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념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냈으나 제시된 협약안의 일부사안에 대한 검토 작업이 좀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11) 뉴질랜드 (Mrs. Margaret Austin, 국가위원회 위원장)

뉴질랜드의 오스틴 수석대표는 유네스코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의견이 유네스코 정책문서에 반영되길 희망하는 한편 유네스코 조직분산화의 성패는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회원국 및 국가위원회의 효과적인 역할과 책임분담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함.

12) 북한 (김향산, 프랑스 대사)

북한의 김향산 수석대표는 소수 강대국에 의한 일방주의 및 패권주의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불신, 갈등, 대립 및 테러리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 심화는 인류 전체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강조함. 한편 김향산 수석대표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여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일본의 교과 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한 평화건설이라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거스르는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유네스코가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 및 평등 구축노력을 보다 강화해줄 것을 요청함. 금차 총회에 상정된 국제규범과 관련하여 북한은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및 ‘생명윤리 보편선언’을 지지하며 이들 규범이 제33차 총회에서 채택되길 희망함. 지난 2004년 중국 수조에서 개최된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고구려고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실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개성지역의 고구려왕조 유적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위해 준비 중임을 알리며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끝으로 김향산 수석대표는 올해 남북한이 상호방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및 광복 60주년 행사를 실시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는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남북한의 자주적인 화해, 번영, 통일을 촉진하는데 있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강조함.

13) 캐나다 (Mr. Jacques Saada, 퀘벡주 경제발전부 장관 겸 불어권담당 차관)

캐나다의 사다 수석대표는 오늘날의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문명 상호간, 국가 상호간의 접촉이 많아짐으로 인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함.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동 협약의 이념을 따르기 위한 회원국들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희망함. 또한 사다 수석대표는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

약’ 및 ‘생명윤리 보편선언’도 지지하면서 이들 규범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함.

14) 러시아 (Mr. Sergey Lavrov, 외무부장관)

러시아의 라브로브 수석대표는 교육이 현대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열쇠라고 언급하면서 유네스코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한편,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및 ‘생명윤리 보편선언’을 적극 지지함. 아울러 유네스코가 자연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치하함. 끝으로 라브로브 수석대표는 21세기의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15) 기타 국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델란드, 덴마크, 체코공화국, 이란, 쿠웨이트, 오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등을 포함하여 지역의 구분 없이 다양한 나라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함. 한편 오만, 그리스, 아랍에미레이트, 네델란드, 인도네시아, 아이스랜드, 브루나이다루살람 등은 유네스코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네스코의 교육사업 강화 노력을 치하함. 스위스 및 덴마크를 포함한 서구 유럽 국가들은 유네스코가 다른 유엔기구들과의 연대강화를 통해 새천년 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함.

일본의 역사교과서 관련 북.일 공방

10월 4일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한국수석대표 연설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북아의 역사적 화해와 평화의 문화 건설을 위해 유네스코가 회원국 공동의 역사교과서 개정작업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데 이어 북한과 일본 대표 사이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놓고 공방이 오감.

10월 7일 북한이 수석대표연설에서 일본의 교과서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일본은 10월 11일 대응발언을 통해 올해 일본정부가 채택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가운데 일본의 식민주의 및 침략주의를 미화한 것이 없다고 반박함.

이에 대해 북한은 채택된 일본 교과서들에 일본이 한국에 가한 야만적 식민행위들이 미화돼 있으며, 일본의 침략행위가 자기방위, 심지어 해방을 위한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따지고 일본 역사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유네스코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껴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한국은 지난 4월 19일 제17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주철기 주프랑스 대사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이 1995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선언」에 위배되며 역사왜곡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일본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음. 당시에 일본대표는 일본은 과거 일본의 침략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이미 표시했으며 일본정부가 교과서 저자에게 특정 역사관을 채택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음.

(관련 발언문들은 99 및 104 페이지 참조)



III. 분과회의

가. 제1분과위원회 (일반 및 프로그램 지원)

1) 의장단선출

- a. 의장: Ms. Mukherjee Bhaswati (인도)
- b. 부의장: Ms. Aïdamirova Tounzala (아제르바이젠)
Ms Alissandra Cummins (바베이도스)
Mr Rachad Farah (지부티)
Ms Mehla Mint Ahmed (마우리타니아)
- c. 서기: Ms Hjørdis Dalsgaard (덴마크)

2) 의제 3.2.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

2008-2013 중기전략과 관련 네델란드 등 26개국이 제출한 33C/COM.I,II,III,IV,V/DR.2의 내용을 먼저 설명함. (교차주제사업 장려, C/4 및 C/5 문서 간의 상호 연계성 증진 등을 주요 원칙으로 삼음). 이후 29개국이 발언함.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출된 DR을 지지하면서 C/4 및 C/5 문서간의 긴밀한 연계성, 우선사업 수의 축소를 통한 사업의 집중, 결과에 근거한 조직 운영, 및 다른 UN 기구와의 연대가 강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회원국 대상 질의서가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회원국의 답변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야 함을 강조함. 한편 많은 회원국들은 국가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유네스코 정책결정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가 강화되길 희망함.

- 제1분과위는 네델란드 등 25개국이 제출한 33C/COM I.II.III.IV.V/DR.2을 총회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3) 의제 3.1. 2008-2009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의제 3.1에 대해 21개국이 발언하였으며 주로 결과에 근거한 사업운영이 필요성, 34C/4 및 34C/5 문서 간의 연계성 강화, C/5 및 C/3 문서간의 연계성 강화, 보다 간단명료한 정책문서 마련, 분야별 대표사업을 하나로 제한, 사업이행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C/5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선됨.

- 제1분과위는 호주 등 18개국이 제출한 33 C/COM.I.II.III.IV.V/DR.1을 총회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4) 의제 4.2. 2006-2007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Part II.B. 참여사업)

50개 회원국이 발언하였으며 주로 참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참여사업의 승인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함. 특히, 프랑스 및 호주는 참여사업이 저개발 국가를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러한 조건이 선진국의 참여사업 활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선진국도 개도

국을 돕는 사업에 참여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한국은 발언을 통해 유네스코 참여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참여사업 예산 축소에 우려를 표시함. 또한 신속한 사업승인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제1분과위는 호주 및 분과위 의장의 구두 수정을 포함한 33C/5 Rev. Add., para 12004를 총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함.
- 주요 수정내용 : DAC/OECD 회원국은 참여사업이 LDC 및 개도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참여사업의 활용을 자재해야 한다는 이전의 문구를 삭제하고, LDC, 개도국 및 과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혜자로 하는 참여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삽입함. 아울러 참여사업 재정보고서 제출시 국가 위 사무총장과 관련 정부부처 재정담당관의 확인을 받도록 했던 조항에서 관련 정부부처 재정담당관을 ‘주무관청 (competent authority)’으로 대체함.
- 집행이사회의 권고 (참여사업의 중요성 등을 언급)를 담고 있는 33C/6 Add.를 총회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권고함.
- 제1분과위는 참여사업의 예산을 미화 2천만불로 축소할 것을 총회에 권고함.

5) 의제 4.2. 2006-2007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Part III. B. 대외관계 및 협력)

한국은 유네스코의 사업 기획, 이행 및 평가 과정에 국가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조직의 분산화 과정에서 지역사무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과정에 국가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길 희망함. 또한 유네스코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한편 한위가 지난 2005년 3월 유네스코 본부 대외협력국과 공동으로 아시아지역 국가위원회 신규직원 훈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실을 소개함. 프랑스, 중국, 호주,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영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도 유네스코 분산화 과정에 국가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한편 국가위원회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아울러 NGO, 시민사회, 유네스코 클럽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을 요구함. 또한 여타 UN 기관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지역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명료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33C/5 Rev. Add., para 21002 관련, 국가위원회, 국내 파트너 및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간의 삼자협력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 중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에 클러스터 사무소 및 ‘유네스코 national office’를 포함시키자는 의견과 ‘UNESCO clubs, centres and associations’라는 문구를 ‘clubs, centres and associations for UNESCO’로 대체하자는 프랑스 및 우즈베키스탄의 구두 수정안을 채택함.

6) 의제 6.4. 지역사업 이행과 관련한 지역의 정의

제1분과위는 33C/54 '지역사업 이행과 관련한 지역의 정의'를 총회가 참고할 것을 권고함. 또한 제1분과위는 총회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7) 의제 9.2. 유네스코 이름 및 로고의 보호

25개국이 발언함. 대부분의 국가들은 33C/65문서가 유네스코 이름 및 로고의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에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아직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으며 특히, 회원국 및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한편, 법률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유네스코의 이름, 약어 및 로고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파리 협약'이 '마크'의 보호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에 이름 및 약어 등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 일부 훈령 조항들이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제1분과위는 법률위원회 보고서 (33C/94) 내용 고려하면서, 총회가 33C/65 para 3을 스페인과 체코 공화국 구두 수정안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 주요 수정내용 : 법률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고려하는 한편, 회원국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이사회가 가능하다면 174차 회의에서 훈령 최종안(회원국 및 국가위원회의 역할 부분을 포함)을 승인할 수 있도록 총회가 집행이사회에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로 함.

8) 의제 6.6. 유네스코에서 사용되는 언어

유네스코의 공식언어 중의 하나인 스페인어가 다른 공식 언어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의 공식문서, 회의, 웹사이트 등에 균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DR에 대해 발언한 17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함.

- 제1분과위는 라틴아메리카 및 캐러비안 그룹을 대표한 파나마 및 스페인이 제출한 33 C/COM.I/DR.2을 총회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9) 의제 5.21. 유네스코의 미래에 대한 검토

이란, 아프가니스탄,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태지역 6개국이 제안한 33C/COM.I/DR.5와 관련 38개국이 발언함. 중.장기적인 유네스코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요구한 이번 DR에 대해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들은 지지를 표명한 반면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이번 DR의 필요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함. 한국은 발언을 통해 이번 DR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하였으나 18개국 Permanent Delegates 만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Para 6과 관련 보다 다양한 회원국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적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위원회를 통한 지식인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번 DR에 대한 지역별 의견차가 심했으나 제1분과위는 비공식 워킹그룹 및 이란, 라오스 등의 수정안대로 총회가 33C/COM.1/DR.5를 채택할 것을 권고함.

10) 의제 6.1. 유네스코 3대 기구 간 관계에 대한 임시작업단 보고

의제 6.5. 집행이사회의 규모

유네스코 3대 기구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시된 총 26개의 권고사항 중 사업운영 주기를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권고 1,3,4항 및 집행이사회의 프로그램 위원회와 재정-행정 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18항, 집행이사회의 회원국 수의 축소를 제안하고 있는 20항, 모든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집행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위해 집행이사국 순환을 제안하고 있는 21항 등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임. 한국은 유네스코의 사업운영 주기와 관련하여 현재의 2년 주기를 지지함. 집행이사회의 프로그램 위원회와 재정-행정 위원회 개선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체재를 유지하되 각 분과위별 토의의제에 중복이 없도록 선거의제 선택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함. 집행이사회의 회원국 수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 끝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이사회의 비공개 세션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17항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 제1분과위는 사무총장이 사업운영 주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좀더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집행이사회의 프로그램 위원회와 재정-행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되 집행이사회가 이들 두 위원회를 보다 조화롭게 운용할 것을 요청함.
- COM/DR.3(집행이사국 순환제 도입)에 대한 롤콜 투표 결과 108불참,14기권, 44찬성,17 반대로 관련 DR이 채택되었으나 제1분과위는 동 의제(권고 21및 수정 Dr.3)관련 투표에 많은 수의 회원국이 불참한점, 회원국간에 심각한 의견차 및 동의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총회의장이 선거그룹들과의 협의 하에 집행이사국 순환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34차 총회에 제출토록 요구함.

11) 의제 4.2. 2006-2007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유네스코 통계국)

의제 4.2. 유네스코 통계국 관련 9개국이 발언하였음. 제1분과위는 프랑스가 제안한 33C/DR.8대로 수정된 33C/5 Rev. Add., para 06006을 총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함.

- 주요 수정내용 : 유네스코 통계국 사업 중 '경험'의 인정에 관한 통계분석 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유네스코 통계국 예산을 미화 1천2만 불에서 미화 9백2만 불로 축소할 것을 총회에 권고함.

12) 의제 6.3. 유네스코 Category I 기관과 Category II 기관에 관한 원칙과 지침
 의제 6.3과 관련 20개국이 발언함.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은
 Category II 기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특
 히 슬로베니아는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의 공식적 관계가 강조되
 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은 유네스코와 Category II 기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을 지적하면서 Category II 기관이 유네스코 총회에 참관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 지
 역 내 유사 Category II 기관 설립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함. 중국은 Category I
 기관의 지정과 관련 지역 배분문제를 언급하는 한편 (e.g. 현재 대부분
 Category I 기관이 유럽에 소재하고 있음) 유네스코 사업에 있어 Category II
 기관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 제1분과위는 유네스코의 사업 이행에 있어 Category II 기관을 보다 효과적
 으로 활용해야하며 이들 기관의 설립에 관한 지침 및 동의서 준비에 있어
 회원국의 특별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33C/19의 para
 2관련 캐나다의 구두 수정안을 총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함.
- 한편 제1분과위는 Annex II의 Category II 기관 설립을 위한 유네스코와 회
 원국 간의 계약서(양식)과 관련 레바논, 노르웨이 등이 제안한 수정안을 총
 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함.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Category II 기관의 운영기
 구 구성에 있어 포함되었던 ‘다른 모든 회원국 대표’가 ‘제한된 수의 회원국
 대표’로 대체되고 유네스코에만 주어져 있던 계약 파기 권한이 당사국에도
 주어지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음.

나. 제2분과위원회 (교육)

1) 의장단 선출

- a. 의장: Ms. Gun-Britt Andersson (스웨덴)
- b. 부의장: Mr. Rolands Ozols (라트비아)
Mr. Armando Rojas (베네수엘라)
Mr. Alexander Dwight (팔라우)
Mr. Tayseer Alno'aimi (요르단)
- c. 서기: Mr. D. Bernard Yonli (부르키나파소)

2) 의제 3.2.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

2008-2013 중기전략에 대해 37개국 대표가 발언하였으며, 대체로 향후 유네스코 중기 전략이 EFA를 계속 추진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유네스코 협력학교 네트워크(ASPnet)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이 많음. 중국은 2003년 제32차 총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농촌교육(rural education)을 강조했으며, 독일은 직업기술교육을, 오스트리아는 다중언어교육을 강조함.

- 제2분과위는 호주등 18개국이 제출한 33 C/COM.I.II.III.IV.V/DR.1을 총회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 제2분과위는 네델란드 등 25개국이 제출한 33C/COM I.II.III.IV.V/DR.2을 총회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3) 의제 3.1. 2008-2009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15개국이 발언하였으며, 한국은 첫 번째로 발언하였음. 한국은 발언을 통해 유네스코의 문맹퇴치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직업기술교육이 2008-2009 사업계획 속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한국은 유네스코 지역 우수센터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아태지역 직업기술교육분야 전문가 약 100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시켰음을 알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4) 의제 4.2. 2006-2007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교육 사무총장보 Mr. Peter Smith는 **2006-2007 년도 사업 및 예산(안)** 편성 배경에 관해 설명하면서, 교사교육,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심각한 교사 부족을 겪고 있어 교사교육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한편 EFA와 ESD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함. 한국은 발언을 통해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 및 양질의 교육사업 간 상호연관성을 주목하는 한편 양질의 교육, 가치교육, 행위교육이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함. 한국은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업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요구함.

- 2006-2007년도 유네스코 교육사업 및 예산(안)에 관련된 수정 결의안(DR)을 논의, 채택함.
- WTO/GATS 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개도국이 처하게 될 교육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외부재원에 의한 남남 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기금을 유네스코 내에 설치하자는 내용의 33C/DR 에 대해서는 “다음 집행이사회에서 재정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는 인도네시아 수정안을 포함 동 DR51을 채택함.

5) 의제 5.3.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품질 보장"에 관한 지침(안)을 위한 유네스코와 OECD 협력,

브라질은 교육이 서비스가 아닌 권리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 지침(안) 준비 과정에서 회원국의 기여가 저조하였음을 지적함. 말레이시아는 이번 지침이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준수 규범임을 언급하면서 유네스코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유네스코 지역협약의 활성화를 제안함. 호주는 유네스코와 OECD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지침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함. 한국은 발언을 통해 이번 지침(안) 채택을 적극 지지하며, 이 지침과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망함.

-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품질 보장"에 관한 지침(안)은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을 외부재원으로 조달한다는 브라질과 인도의 수정안에서 “지역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지침을 근거로 하여...”라는 자구 수정 후 채택함.

6) 의제 8.1. 스포츠 反도핑 국제협약(안)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스포츠 反도핑 국제협약(안)의 채택을 적극 지지함. 한국도 발언을 통해 동 협약(안)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온 유네스코와 WADA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동 협약의 채택을 지지함. 한편 한국은 재정적 문제에 있어 유네스코 정규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

- 모니터링 비용은 Voluntary fund로 하고, 사무국 비용은 유네스코 정규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이 합의함에 따라 제2분과위는 동 협약 최종안을 총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함.

7) 의제 5.3. 점령된 아랍영토의 교육·문화기관에 관한 32C 결의안 54의 이행
동 의제는 별도의 논의 없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함.

8) 의제 5.18.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평가와 미래 전망

EFA에 관련 교육장관회의에서 채택된 Joint Communiqué를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 Mr. Peter Smith가 낭독하고, 이어 이에 관련된 DR 2, 3, 4, 5, 6을

토의, 채택함.

- G77의 의장국인 코스타리카가 제안한 ‘외채를 교육 투자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 DR 2에 대해 선진국들은 이 의제가 유네스코의 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남미, 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은 분명히 유네스코가 다루어야 할 의제라고 주장하여 팽팽히 맞서다가 “외채를 교육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유네스코 내에 설립하되, 재정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추진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하여 이를 채택함.
- 덴마크가 제안하고,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지지한 DR 4는 위기에 처한 indigenous people의 언어를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큰 이견 없이 채택됨.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공동 제안한 DR 6은 (1) 유네스코 EFA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Global Monitoring Report의 내용을 토대로 EFA Working Group이 High-level Group에 정책을 건의하도록 하는 일정 수립을 유네스코에 요구하고 (2)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34차 유네스코 총회 및 제174차 집행위원회에 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소한 자구 수정 후 채택함.

다. 제3분과위원회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1) 의장단 선출

- a. 의장: Mr. Julius Oszlanyi (슬로바키아)
- b. 부의장: Mr. Gene Whitney (미국)
Mr. Fernando Lema (우르과이)
Mr. Seyed Mohammad Tavakol Kosari (이란)
Ms. Fatima Abd El Mahmoud (수단)
- c. 서기: Mr. Jude M. Mathooko (케냐)

[인문 사회과학]

2) 의제 4.2. 2006-2007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업 및 예산(안)

영국을 시작으로 31개국 대표 및 1개의 NGO 대표가 발언함. 대개 유네스코의 중점 추진 사업인 과학기술윤리 진흥에 대하여 지지했으며 지속가능발전, 인간 안보, 인권, 사회과학-정책 연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미국은 민주시민교육, 인권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프랑스는 COMEST 사업이 유엔 다른 기구와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제3분과위는 사업 III.1. 과학 및 철학의 윤리 와 III.1.1. 과학의 윤리관련 미국의 구두 수정안과 케냐가 제안한 33C/DR.42 및 33C/DR 53의 수정 내용을 포함한 33C/5 Rev. Add. para 03110을 총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함.

3) 의제 5.11. 세계철학의 날 선포

세이트 루시아, 이란 등 28개국이 발언함. 회원국들은 대체로 세계철학의 날 선포를 지지하면서 철학이 상아탑에서 나와 현실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함. 한국 또한 세계 철학의 날 선포를 지지하면서 한국이 유네스코본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아시아 아랍 철학 대화 회의' 및 '세계 철학자 대회' 등 철학사업을 소개하고 유네스코와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함.

4) 의제 5.4. 지구적 의식과 민족간 대화의 해 기념

필리핀 등 18개국이 발언함. 큰 논란 없이 제출된 DR 일부 자구수정 후 채택함.

5) 의제 3.2.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

레바논, 탄자니아 등 28개국이 발언함.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초과학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많은 국가들이 IBSP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함. 아울러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음.

- 유네스코 차기 중기전략 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시한 안도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모나코, 네델란드, 스위스의 DR(33 C/COM. I,II,III,IV,

V/DR2)을 총회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 자연과학 및 인문과학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회원국 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팀이 수행하여 보고하게 하자는 DR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제출)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사무국내부에 팀을 만들어 이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채택함.

6) 의제 8.2. 생명윤리 보편 규범 선언 초안

파나마 우루과이 등 49개국이 발언을 통해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채택을 지지함. 한국 또한 선언의 채택을 지지하며 채택이후의 후속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함. 특히 생명윤리 교육 사업이 생명윤리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 분야 활동의 촉진의 필요성을 제기함. 미국은 인간 생명의 중요성과 지적재산권을 강조함. 북한도 선언을 지지하는 한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생명공학 기술 공유 원칙을 강조함.

- 선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인도네시아 및 미국의 제안을 반영한 (선언문은 동일) 수정안을 총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함.

7) 의제 5.28. 과학자 윤리 강령의 기초로서 과학윤리에 관한 국제 선언 초안 가능성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덴마크, 중국, 일본 등 14개국이 발언을 통해 동 선언 타당성 연구 수행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COMEST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스위스 대표는 유네스코가 과학자 강령을 만드는데 적합한 기관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또 하나의 과학 관련 국제 선언이나 규범을 만들기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국가별로 강령을 만들도록 자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유네스코의 역할을 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원안과 스위스의 수정안을 두고 투표를 시행하여 원안 32표, 수정안 28표를 얻어 원안대로 채택됨.

[자연과학]

8) 의제 4.2. 2006-2007 유네스코 자연과학 사업 및 예산(안)

49개국이 발언을 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물과 자연재해 관련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해당 지역 및 국내 사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캐나다는 접경 협력의 인간안보에 기여, 물 사업에서 인식증진 활동 강화, 자연재해 대비 사업의 강화 등 자연과학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 영국은 유럽 지역과학사무소 (ROSTE)의 활동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활동지역을 중앙 및 동유럽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또, 미국은 우선순위 사업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baseline 예산안을 지지함. 17개 태평양 섬 국가들을 대표하여 발언한 통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평양 연안 섬 국가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식수, 쓰

나미 경보체계 사업에 이들 국가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DR에 대한 회원국간 경쟁이 심하다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함. 한국은 물 우선순위 사업 이외의 중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약화되지 않아야 하며, 수적으로 늘어난 생물권보전지역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BSP의 회원국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국이 관련 정보를 원활히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

- 관련된 15개 DR 중 다음 11건의 DR이 채택됨. (DR 17, DR 66, DR 61, DR 7, DR 28, DR 31, DR 30, DR 37, DR 40, DR 52, DR 56)
- 전 세계 과학계에서의 유네스코 역할을 평가하고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간의 접점에 대한 고찰을 위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DR 56 (영국 및 북구 5개국 제안)과 관련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외부 평가단과 유네스코 내 고위급 직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이를 위해 정규예산 US\$120,000을 사용하고 비정규 예산 마련도 추진하기로 최종안을 제시하고 COM III는 이를 채택함.

9) 의제 5.6. 세계적 쓰나미 경고체계 설립을 위한 전략

33개국이 동 안건에 대한 발언을 통해 세계적 쓰나미 경보 체계 구축 전략을 지지함. 미국과 프랑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에 동 체계가 잘 연계되어함을 지적하였고 독일은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경보 체계 설립에 4백5십만 불을 지원, 캐나다는 인도양 쓰나미 조기 경보 체계에 1십만 불을 지원하였고 역량형성 사업에 5십만 불을 추가 지원할 것이며, 중국도 관련 지식과 장비 지원 의사를 밝힘. 그러나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은 경고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편, 한국은 전 지구 시스템에서 역량형성과 재해위기 경감 및 관리 활동 강화를 필요함을 언급하고, 한국이 훈련 및 교육, IT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및 평가, 장비와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림.

- 최종적으로 동 의제 DR 3번 문단에 몇 단어를 추가하자는 핀란드의 요청을 받아들여 ("... a global operational multi-hazard detection and warning system;") 동 의제를 채택함.

10) 의제 5.9. 생명공학 훈련과 교육을 위한 지역센터 설립 (인도소재)

의제 5.25. 베네수엘라에서의 유네스코 우수센터 설립 가능성 조사

의제 5.26. 브라질 IMPA 대상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지역센터’ 자격 부여 타당성 조사

자연과학분야에서 유네스코 후원 센터(Category II)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 총 8개 센터가 설립됨. (물 관련 5개소, 생명공학 관련 1개소, 생물학

관련 1개소, 수학 관련 1개소) 이는 국가 센터들의 국제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네스코의 분산화 정책과 맞물리는 것으로 판단됨.

- 19개국이 위 3개 센터 설립에 대한 지지 또는 관련 계획을 설명한 뒤 3개 의제를 그대로 채택함.

11) 의제 5.14. 2007년 유엔 국제 지구의 해 선언

의제 5.30. 2009년 세계 천문학의해 선포

탄자니아 정부가 제안한 2008년 지구 행성의 해는 유네스코 예산 부담이 없는 사업임. 2009년 천문학의 해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탄생 4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우주 연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을 촉진하는 해가 될 것이며 이태리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함. 이들 의제에 대해 23개 회원국과 1개 참관기관이 발언함. 유럽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천문학의 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지구 행성의 해와 관련하여서는 사막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지구과학의 역할이 강조됨. 한국은 2008년 국제 지구 행성의 해가 지구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자연재해와 환경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보내는 한편 2009년 국제 천문학의 해 선언에도 지지를 표명함.

- 위 2개 의제 모두 채택됨.

12) 의제 5.10. 국제 물 위험요소 및 위기관리 센터 (ICHARM)' 설립 (일본 제안)

의제 5.16. IHP-HELP, 물 관련 법, 정책, 과학 센터 설립 (영국 제안)

의제 5.32. 라틴아메리카 및 캐러비안 사막화지역을 위한 지역 물센터 설립제안 (칠레 제안)

20개국이 발언하여 위 센터 설립을 지지함. 불가리아 대표는 영국 던디 대학교에 설립되는 센터와 네덜란드 델프트에 있는 UNESCO-IHE 간의 관계와 역할 중복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유네스코 사무국은 UNESCO-IHE가 물 관련 센터들의 Hub가 되어 전체 물 관련 센터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대답함. 한국은 일본 쓰쿠바 대학에 UNESCO-ICHARM 설립 준비 단계부터 지지해 왔으며, 한국 전문가들이 동 센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을 밝힘.

- 위 3개 센터 설립을 최종 승인하는 의제 모두 채택함.

13) 의제 5.27. 생태수문학 유럽 지역센터 설립제안 (폴란드 제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7개국이 동 센터 설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동 의제를 채택함.

14) 의제 5.20. 도시 물 관리를 위한 지역센터 설립 제안 (콜롬비아 제안)

7개 회원국 대표와 세계기상기구 (WMO) 사무총장 대표가 발언하여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동 의제를 채택함.

라. 제4분과위원회(문화)

1) 의장단 선출

- a. 의장: Mr. Jaime Nualart (멕시코)
- b. 부의장: Mr. Giuseppe Moscato (이탈리아)
Mr. Alisher Ikramov (우즈베키스탄)
Mr. Itumelenq Mosala (남아프리카)
Mr. Jiangang Li (중국)
- c. 서기: Mr. Alexandre Najjar (레바논)

2) 의제 4.2. 2006-2007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미국은 미화 100만달러 이상이 문화다양성 증진사업에 배정되어 있는데 문화다양성 사업이 채택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분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노르웨이, 일본, 쿠바 등 다수의 국가들이 문화다양성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채택을 지지함. 포르투갈은 2006년 3월 세계 예술교육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유네스코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후속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함. 한국은 33C/5가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었으나 문화다양성의 근간이 되는 문화정책, 예술, 문화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것을 지적하고 2006년 세계예술교육회의에 앞서 아태지역준비회의를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제2차 세계예술교육회의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힘. 아울러 무형유산사업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며 아태지역국가를 위한 신탁기금을 체결한 바 있음을 알림.

- 무형유산분야의 미화 30만 불을 다른 분야로 전환하자는 캐나다의 DR 10에 대해 일본, 한국이 무형유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안에 반대하였으며 다수 국가들이 이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채택되지 않음.
- 오스트리아가 DR 34를 통해 2007년을 세계 언어의 해로 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지지했으나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동 기념 해를 2008년에 실시하기로 함.

3) 의제 3.2.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 준비

의제 3.1.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준비

다수 국가가 무형유산보호제도의 도입, 목록화 작업, 유.무형유산 보호정책의 통합적 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세계유산사업의 신뢰도 증진, 지역적 형평성 고려, 특히 자연유산 등재 강화 요구 등 세계유산의 사업 원칙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언급함. 아울러 유엔 밀레니엄 목표 및 스톡홀름 문화정책회의의 후속사업을 유네스코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발효에 따라 정부간 위원회가 설립될 것인 바, 동 위원회의 기능 및 관련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함. 한국은 과거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사업이 유네스코의 가시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것은 인정하나 현재 문화에 대한 유네스코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아울러 회원국의 협력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4) 의제 5.15. 2007년 몬테레이 문화포럼

2004년 바르셀로나의 Universal Forum of Cultures의 후속사업으로 개최되는 2007년 몬테레이 포럼이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의 목적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는 주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동 포럼의 개최에 유네스코가 주요 파트너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하고 그 결과를 34차 총회 시 보고하도록 함.

5) 의제 5.12. 불법 반출·입 문화재 반환 활성화를 위한 전략

그리스는 동 의제에 대하여 정부간위원회의 기능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중재 (mediation)와 조정 (conciliation) 기능을 추가하며 쟁점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시 정부간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을 명시한 잠정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은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결의안을 채택함. 이에 대하여 일본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산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법률자문가의 권고대로 추가 발생하는 예산은 비정규 예산 (Extra-budgetary resources)에서 충당하도록 결정하고 동 잠정결의안을 채택함. 한국은 그리스의 잠정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북관대첩비와 3,186점의 문화재 반환의 현황과 프랑스와 협의 중인 외규장각 반환 문제를 언급함. 또한 14차 불법문화재 반환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의사를 표명하고 동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제공할 것을 발언함.

6) 의제 5.13. 2차 세계대전 중 이전된 문화재 반환 원칙

13차 불법소유문화재반환을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채택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옮겨진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원칙에 대해 마다가스카, 멕시코와 이탈리아는 채택을 지지하였고 독일,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등은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회원국들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스위스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동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부간회의를 주최하고 2007년에 동 의제를 재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수정결의안을 제안하였는 바, 새로운 standard setting instrument의 정립에 대해 법률 자문가의 권고대로 구속력이 없는 'Declaration of Principles'의 형태로 정하고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여 다루기로 함.

7) 의제 8.3.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

토의시작과 동시에 동 협약 채택을 적극 지지하는 남아공, 캐나다, 멕시코 등 14개 문화장관에게 우선 발언기회를 부여하였고, 다음으로 각 그룹을 대표하는 영국 (EU의장국), 코스타리카 (G-77 및 중국), 파나마 (GRULAC대표)가 우선 발언권을 신청하여 동 협약 문안에 대한 지지 및 금번 총회에서 채택을 지지함. 그 외에 79개 회원국 및 8개 NGO가 발언을 신청하여 동 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 미국대표는 동 협약에 대해 지난 6월 이래 진정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성급히 성안된 동 협약안은 심각한 오류가 있고 내용적으로 유네스코의 기본정신인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 (free flow of ideas)과 배치됨을 언급함. 또한 모호한 협약 문안이 각국에 의해 오용되어 심각한 무역장벽을 유발함으로써 세계무역 체제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협약문안의 명료화를 위해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동 분과에서 토의되기를 희망함. 일본은 기본적으로 금번 총회에서 협약안 채택을 지지하고 협약 문안에 대한 재토의에는 반대함을 분명히 하면서 자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협약의 명료화를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가급적 많은 국가가 지지해 주기를 희망함. 호주는 동 협약안 채택과정에서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4조 정의의 모호함, 제6조, 제16조 및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20조를 이유로 동 협약안 채택에는 찬성하지 않으나 반대도 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함.

- 유네스코 법률 국장의 조언에 따라 28개 항목에 대한 개별 표결이 진행됨. 표결결과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을 포함한 3~5개 국가가 미국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고, 한국을 포함한 3~6개 국가 (태국, 필리핀, 키르바시)가 기권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반대하여 미국 결의안은 부결됨.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문화분과 표결 결과 찬성 151, 반대 2 (미국, 이스라엘), 기권 2 (호주, 키리바시)로 채택되어 총회에 상정됨.
- 동 표결후 일본, 미국, 뉴질랜드, 한국, 멕시코 등 5개국이 발언함. 일본은 동 협약안 채택을 지지하였음을 밝히고 동 협약과 기존 협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자국의 결의안이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동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함. 또한 미국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그간 미국이 보여준 적극적인 태도를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미국이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미국은 동 협약안 채택에 실망하였으며, 협약 문안이 잘못 해석될 여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문화다양성 채택을 위해 최종 투표한 결과, 총 154개국 참석, 찬성 148표, 반대 2표 (미국, 이스라엘), 기권 4표 (호주, 온두라스, 니카라과, 라이베리아)로 최종 채택됨.

8) 의제 5.3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센터 설립제안 (페루 소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 센터(카테고리 II)를 설립하기 위한 페루 정부의 제안을 환영하고 쿠스코에 Category II급의 센터 설립을 승인하며 페루 정부와의 합의서에 서명할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사무국에 의해 제안된 바, 대다수 국가의 동의 하에 채택됨.

9) 의제 5.5. 종교적 표현과 상징의 오용

스리랑카는 사무총장이 종교간 대화 프로그램에 동 종교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한 문안 다음에 “동 활동에 대한 보고 (and to report)”를 포함하도록 요청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문화 간 대화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문안에 “종교적 신념 간 (interfaith)” 대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대다수 국가의 지지로 상기 수정문안이 반영됨.



마. 제5분과위원회 (커뮤니케이션)

1) 의장단 선출

- a. 의장 : Mr. Mohammed S. Sheya (탄자니아)
- b. 부의장 : Mr. Daniel Malbert (프랑스)
Ms. Eleonora Husseinova (아제르바이젠)
Mr. Wacef Chiha (튀니지)
Ms. Patricia Dore Castillo (도미니카 공화국)
- c. 서기 : Mr. Laurence Zwimpher (뉴질랜드)

2) 의제 4.2. 2006-2007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의제 4.2에 대해 캐나다, 중국 등 47개국 대표와 IASA, IFTA, WPFC 등 3개 NGO 대표가 발언하였으며 대체로 지식 사회 건설에 ICTs가 기여해야 한다는 중점 사업 방향에 공감하면서 국가별 특수 관심사를 언급함. 캐나다의 경우, 정보의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중국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다언어 사용을 강조하였으며, 독일, 헝가리 등은 세계의 기억 사업 (MOW)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예산이 감축된 것을 지적함. 말레이시아는 정보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진행 중인 남남 협력 사업을 소개하였고, 호주의 경우는 콘텐츠의 다양성, 다문화 사회, 필름 라디오 등 로컬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터키는 빈곤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함. 한국은 발언을 통해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한 인민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유네스코 우선사업을 지지하는 한편 한국의 “Global Partnership for ICT in Education”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유네스코가 디지털 격차 해소와 ICT 역량강화를 위해 좀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언급함. 한국은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남용, 인터넷 중독 등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유네스코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유네스코 활동에서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 특히 교육 섹터와 CI 섹터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WSIS에서 강조하는 ICT와 Learning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네스코가 폭넓고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이란, 이슬람 공화국 등이 제안한 33C/DR.19, 20 대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저널리즘 관련 지역세미나 조직에 필요한 초기재원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무총장의 지원을 비정규 예산을 통해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고 ‘V.1.1. 표현의 자유 및 보편적 접근성 증진을 위한 환경 마련 사업’에 미화 3백4십만 달러를 배정하고 본부 프로그램 간접비용에 미화 5십6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결의함.
- ‘V.1.2. 커뮤니티 접근성 및 콘텐츠 다양성 촉진 사업’과 관련 이집트, 오스트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터키 등이 각각 제출한 33C/DR.13, 34, 44, 57대로 일부 문구를 추가하고 사업 예산으로 미화 6백3십만 불과 프로그램 간접

- 비용에 미화 1십만 불을 배정하기로 결의함.
- ‘V.2.1. 미디어 다양성 촉진 사업’관련 도미니카 공화국이 제출한 33C/DR.45 대로 일부 자구 추가 후 사업 예산으로 미화 2백3십만 불을 배정하고 프로그램 간접비용으로 미화 3십8만불을 배정하기로 결의함.
 - ‘V.2.2. 교육, 과학 및 문화에서의 ICTs 활용 증대 사업’관련 케냐가 제출한 33C/DR.54 대로 일부 자구 추가 후 사업 예산으로 미화 5십8만불을 배정하고 프로그램 간접 경비로 미화 9천6백 불을 배정하기로 결의함.
 - 두개의 교차 주제 사업인 ‘빈곤퇴치’, ‘지식 사회 건설, 교육, 과학,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기여’와 관련한 프로그램 경비로 \$1,500,000을 배정하기로 결의함.

3) 의제 3.2.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

의제 3.2에 대해 30개국 대표 및 2개 NGO 대표가 발언함. 몇몇 회원국 대표들은 정보사회 정상회담이 (2003년 제네바 회의, 2005년 튀니지 회의) 새로운 중장기 전략 준비에 토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4가지 지식 사회의 개념을 강조하는 원칙 (표현의 자유, 정보와 지식에 대한 보편적 접근, 양질의 교육, 문화다양성 증진)이 C/4 문서를 다듬는데 지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많은 회원국들은 ICTs가 평등한 사회 건설, 특히 빈곤퇴치와 모두를 위한 교육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회원국 대표들은 향후에도 표현의 자유, 미디어 다원주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과 같은 핵심주제들이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유네스코 활동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함. 일부 회원국들은 또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분야가 평화 구축, 갈등 중재, 화해 및 대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디어의 공적 서비스 강화를 강조함. 끝으로 많은 회원국들은 교사대상 ICT 교육 및 전문가 대상 훈련 프로그램 등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지지함. 한국은 발언을 통해 향후 유네스코가 중점을 두어야 할 세 가지 사항으로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인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정보윤리 및 인권과 같은 이념적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지도적 역할 강화, ICT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중장기계획 마련 등을 언급함.

- 제5분과위는 네델란드 등 25개국이 제출한 33C/COM I.II.III.IV.V/DR.2을 총회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4) 의제 3.1. 2008-2009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의제 3.1에 대해 14개국이 발언하였으며 대부분 34C/4 및 34C/5 문서 간의 연계성 강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34C/5 준비 과정에서 MDG 목표가 보다 강조되어야 함 등을 언급함. 특히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교육사업과 커뮤니케이션 사업 간의 Inter-sectoral action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함.

- 제5분과위는 호주 등 18개국이 제출한 33 C/COM.I.II.III.IV.V/DR.1을 총회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5) 의제 5.7. 정보화 사회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 정상회의

의제 5.17. 미디어와 Good Governance에 대한 선언

의제 5.19. 제2차 세계 정보기술포럼 2005

상기의 3개 의제와 관련 48개국 대표 및 6개의 NGO 대표가 발언함. 미디어와 Good Governance에 대한 선언과 관련하여 덴마크 등 북구 5개국이 제출한 33C/COM.V/DR5 중 “Emphasizing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held by public bodies as a vital component of good governance,”부분에 대해 이집트는 정보의 공적, 사적 영역 모두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public bodies 부분을 삭제하고 정보 접근 권리를 강조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함. 한국은 최근 개최된 여러 국제회의에서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 (Access)를 강조하는 실행적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같은 국제 사회의 흐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결국 커뮤니케이션 분과위는 “Emphasizing that access to information is a vital component of good governance”로 자구 수정 후 이를 총회에서 채택하도록 권고함.

6) 의제 5.33. 동영상 자료보호를 위한 권고 채택 및 세계 시청각문화재의 날 선포 25주년 기념

의제 5.33와 함께 체코 공화국 등 8개국이 제안한 33C/COM.V/DR1에 대한 의제 소개 후 10개국 대표 및 1개 NGO 대표가 발언함.

- 제5분과위는 33C/COM.V/DR1와 관련 총회가 분과위의 수정안대로 동 DR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7) 의제 8.4. 사이버 공간의 사용언어 다양화 및 보편적 접근 증진에 관한 권고 이행에 대한 보고체계 설립

의제 8.4에 대해 15개국 대표 및 1개 NGO 대표가 발언함.

- 제5분과위는 33C/40 para 7에 포함된 내용을 총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함.

바. 행정분과위원회

1) 의장단 선출

- a. 의장 : Mr. Mohammed Bedjaoui (알제리)
- b. 부의장 : Ms. Dominique Levasseur (캐나다)
Mr. Vladimir Kalamonov (러시아)
Mr. Carlos Herrera (페루)
Mr. Ryuhei Hosoya (일본)
- c. 서기 : Mr. Antoine Wongo Ahanda (카메룬)

2) 의제 10.5. 회원국 분담금 규모와 통화

유네스코의 회원국 분담금 규모 확정과 관련하여 9개국 대표가 발언함.

- 행정분과위는 유엔 제58차 및 61차 총회에서 각각 채택된 회원국별 분담금 규모에 근거하여 2006-2007년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로 함. 한편 각 회원국은 2006-2007년도 분담금의 56%를 유로화로 지불하기로 정함. (미화 1 달러 = 유로화 0.869 기준)

3) 의제 10.6. 회원국 분담금 모금

의제 10.6에 대해 35개국 대표가 발언함.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 (External borrowing)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국가들의 발언이 있었음. 미국, 탄자니아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한 반면, 코스타리카,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시리아 등은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음.

- 자금 사정이 예외적으로 어려울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내부 차입 (internal borrowing)을 먼저 한 후, 더 이상 동원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외부 차입을 들여오되, 그 규모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제안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총회가 채택하도록 권고함.
- 한편,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 및 미납 현황, 향후 납부 계획서 등을 검토한 행정분과위는 유고슬라비아의 특수한 국내사정을 고려해주기로 하였으며 코스타리카, 기니아-비소 등 7개국의 향후 분담금 납부계획을 수용했으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8개국에 대한 투표권 행사 불가 판정을 내림.

4) 의제 10.7. 운영기금: 기금 현황 및 관리

- 3개국 대표가 발언하였음. 행정분과위는 2006-2007년도 운영기금 수준을 미화 2천8백만 불로 정함.

5) 의제 4.5. 2006-2007 예산 상한선 채택

- 2006-2007년도 예산 상한선을 미화 6억1천만 달러로 정함.

6) 의제 10.3. 200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기간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보고 및 중간재무제표

의제 10.3에 대해 16개국 대표가 발언하였는바, 캐나다, 미국, 일본, 쿠바, 세인트루시아 등이 결의안에 조항의 추가를 요구해 결국 캐나다, 세인트루시아, 나이지리아, 독일 등으로 초안위원회를 구성함. 초안위원회는 결의안 원안에 ‘사무총장의 Unliquidated obligations의 미지출 잔액의 사용 최소화’, ‘집행이사회에 C/3 및 C/5의 이행 결과 보고’, ‘5개 주요사업에 할당된 예산이 유네스코 활동에 맞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사무총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영국이 제안한대로 벨몬트 플랜(Belmont Plan) 진척과 미울리스/벨몬트 부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유네스코 청사 관리에 대한 보고를 제34차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킴.

- 행정분과위는 수정된 결의안을 총회가 채택하도록 권고함.

7) 의제 10.2. 2003년 12월 31로 끝나는 회계기간에 대한 유네스코 재정보고 및 결산재무제표

의제 10.2에 대해 11개국 대표가 발언함. 캐나다, 스페인 등은 전체 사업예산에서 공여국이 지정한 특정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Extra-budgetary fund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네스코 이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Extra-budgetary fund 수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행정분과위는 2003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재무제표 및 외부 감사관의 보고서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총회가 채택하도록 권고함.

8) 의제 4.2. 2006-2007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의제 4.2에 대해 31개국 대표가 발언함. 가나,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등은 정규예산 규모 및 특별예산 미화 2,500만불의 활용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일본은 특별예산 미화 2,500만불이 일회성 예산임을 강조함. 한편 영국은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유네스코의 분산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과 너무 많은 수의 소규모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판함. Part III.A 현장운영 및 조정, III.C. 인력 운영, III.D. 행정 및 재분류를 위한 준비금 등에 대한 토론에서 스페인은 특별예산 미화 2,500만불의 집행에 대한 총회의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미국, 멕시코, 일본, 영국 등이 이를 지지함. 또한 스페인은 분산화 차원에서 유네스코 본부와 지역사무소 간에 직원 교환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레바논은 본부와 지역사무소 간의 협력의 중요성 및 각각의 명료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말레이시아는 집행이사회에서 분산화 작업이 애초의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행정분과위는 33C/5 Part I. 일반정책 및 방향에 미화 3천8백6십만불

- (33C/5 Rev. Add. para 00002), Part III.A. 현장운영 및 조정에 미화 2천9십8만불 (33C/5 Rev. Add. para 20002), Part II.A. 분산화 사업운영에 미화 4천8십만불 (33C/5 Rev. Add. para 07002), Part III.C. 인력관리에 미화 3천7십만불 (33C/5 Rev. Add. para 22002), Part III.D. 행정, 본부건물 유지 및 보수에 미화 1억6백만불 (33C/5 Rev. Add. para 23002), 직급재분류 예비비에 미화 1백5십만불 (33C/5 Rev.) 등을 각각 할당하도록 총회에 권고함.
- 행정분과위는 2006-2007년도 사업예산에 미화 6억1천만불을 할당하는 한편 특별예산 미화 2천5백만불의 활용을 승인하도록 총회에 권고함.

9) 의제 10.1. 조직개혁 이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의제 10.1에 대해 21개국 대표가 발언함. 조직의 분산화정책에 대해 스페인은 효과적인 분산화와 동시에 효과적인 집중화도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했으며 레바논은 지역사무소와 각국의 국가위원회, 유네스코클럽, NGOs 등과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멕시코는 직원 승진이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아울러 지역 배분현황에 있어 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들의 채용이 미비한 점을 지적함. 또한 노르웨이 및 레바논은 고위직에서의 여성 채용 비율이 아직 낮다는 점을 지적함. 한편, 조직의 새로운 운용도구들에 대해 스페인, 레바논, 영국 등은 회계시스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미국과 레바논은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보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를 요청하는 조항을 결의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함.

- 행정분과위는 부분적 자구수정이 이루어진 인사정책 및 분산화와 관련 결의안을 총회가 채택하도록 권고했고 조직의 새로운 운용도구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레바논의 제안을 반영한 결의안을 총회가 채택하도록 권고함.

10) 의제 10.10. 직원 의 지리적 배분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의제 10.10에 대해 한국을 포함 10개국 대표가 발언함. 한국은 사무국 직원의 지역별 배분 비율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 YPP 사업의 문제점(낮은 직급으로만 채용)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향후 5년 동안 은퇴하는 사무국 직원의 자리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배분 상황이 개선되어야 함 등을 지적함. 이어 호주가 한국의 발언을 지지하며 직원채용과 관련한 절차의 투명성 제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자의적인 결정 회피의 필요성 등을 언급함. 한편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 출신의 직원 수가 적은 점을 지적하였고 일본은 Post-weighting 제도의 공식적인 도입을 제안함. 끝으로 말레이시아, 카메룬 및 ISAU 등은 본부 및 지역사무소의 모든 직급에서의 지역배분 및 성비 균형 증진을 촉구함.

IV. 주요 결의 내용

가. 사업 및 예산 채택

제33차 유네스코 총회는 고이치로 마쓰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안한대로 미화 6억1천만 달러를 2006-2007년도 사업 정규예산으로 채택하고 여기에 미화 2천5백만불을 비정규예산으로부터 추가하여 우선사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이번 총회가 채택한 사업 및 예산의 사업 영역별 우선사업으로는, ‘모두를 위한 기초교육사업’, ‘수자원 및 생태계사업’, ‘과학 및 기술윤리사업’,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그리고 ‘정보 및 지식 접근성 증진을 위한 사업’등이 정해짐. 사업 예산의 배분을 보면, 교육사업에 전체 정규예산의 17.5%에 해당하는 미화 1억7백만 달러가 할당됐고, 자연과학사업에 미화 5천6백만 달러, 문화사업에 미화 5천만 달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사업에 미화 3천3백만 달러, 인문사회과학사업에 미화 3천1백만 달러가 각각 배정됨.

● 33C/5 예산 배분 현황

(단위 USD)

구분	정규예산
Part I 일반정책 및 방향	38,660,100
Part II. 사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	
A. 사업	
1. 교육	107,802,100
2. 자연과학	55,994,500
3. 인문사회과학	30,838,000
4. 문화	50,574,600
5.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32,950,400
6. 유네스코통계국	9,020,000
7. 현장-분산화사업관리	40,813,800
B. 참여사업	20,000,000
C.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30,398,900
Part III. 사업이행지원 및 행정	177,681,900
재분류 준비금	1,500,000
Part IV.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	13,765,700
합계	610,000,000

나. 집행이사국 및 정부간 위원회 이사국 선출

이번 총회 기간 중에는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선출을 포함 총 17개의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됨. 한국은 지난 2003년 말에 임기가 끝나 이사국에서 2년 동안 물러나 있던 국제교육국 위원회 (IBE)와 세계유산위원회 (WHC) 선거에 참가해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05년 말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불법소유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ICPRCP) 선거에서도 이사국으로 재 선출됨. 한편, 한국은 지난 1993년 제2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으로 법률위원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로 법률위원회 이사국으로 선출됨. 한국은 현재 이들 4개 정부간위원회 외에도 인간과 생물권사업 국제조정위원회(MAB)와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IGBC)의 이사국으로 현재 활동 중임.

1)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 구성: 5개의 지역별 그룹에서 선출된 58개국 대표로 구성 (4년 임기)
- 금차 총회 피선국 현황 (집행이사회 의장으로는 중국의 Mr. ZHANG Xinsheng, 중국 교육부 차관이 선출됨)

구분		의석수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지역				
I 그룹 (서구, 북미)		9석	Canada, France, Italy, Switzer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Norway, Portugal, Luxembourg, United Kingdom
II 그룹 (동구)		7석	Russian Federation, Slovenia, Czech Republic, Hungary	Lithuania, Serbia and Montenegro, Azerbaijan
III 그룹 (중, 남미)		10석	Venezuela, Ecuador, Guatemala, Uruguay	Bahamas, Colombia, Saint Kitts and Nevis,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Brazil, Mexico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12석	Sri Lanka, Bangladesh, Indonesia, Cambodia, Pakistan, Afghanistan	China, Japan, Thailand, India, Fiji, Nepal
V 그룹	(V-a) (아프리카)	14석	Mauritius, Cameroon, Namibia, Cape Verde, Mali, Congo, Ghana	South Africa, Ethiopia, Benin, Nigeria, To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Uganda
	(V-b) (중동)	6석	Bahrain, Morocco, Yemen	Egypt, Algeria, Lebanon
합계		58석	29석	29석

2) 제33차 총회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 목적: 당 총회에서 의 현장 개정안 및 기타 법률적 문제 검토
- 이사국: 아래의 24개국이 선출됨 (32차 총회 시 21개국이 선출되었으나 금차 총회에서 이사국 수가 24개로 늘어남) (2년 임기)

지역		이사국
I 그룹 (서구, 북미)		Denmark, France, Italy, Switzer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I 그룹 (동구)		Moldova, Ukraine, Uzbekistan
III 그룹 (중, 남미)		Argentina, Ecuador, Guatemala, Jamaica, Saint Luci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India, Iran, Japan, Republic of Korea
V 그룹	(V-a) (아프리카)	Equatorial Guinea, Ghana, Niger
	(V-b) (중동)	Algeria, Egypt, Lebanon, Sudan

3) 본부청사위원회 (Headquarters Committee)

- 목적: 본부청사 유지 및 확장관련 문제 검토
- 이사국: 24개국 (4년 임기)

지역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France	Netherlands, Spain, Sweden
II 그룹 (동구)		Romania, Ukraine	-
III 그룹 (중, 남미)		Colombia, Panama, Uruguay	Saint Luci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Philippines, Thailand	Australia, Bangladesh, DPR Korea
V 그룹	(V-a) (아프리카)	Congo, Kenya, Madagascar	Cameroon, Ghana, Zimbabwe
	(V-b) (중동)	Oman	Lebanon, Syrian Arab Republic

- 4) 교육차별 금지협약 분쟁조정위원회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responsible for seeking the settlement of any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이사국 : 협약에 가입한 32개국 대표 1명씩으로 구성됨.
Argentina,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osta Rica, Côte d'Ivoire, Cyprus, Denmark, Dominica, Egypt, France, Germany, Guatemala, Israel, Italy, Jordan, Libyan Arab Jamahiriya, Madagascar, Malta, Morocco, Netherlands, Niger, Norway, Panama, Philippines, Portugal,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enegal,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Uganda, United Kingdom

- 5) 국제교육국 정부간 위원회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 이사국: 28개국 (4년 임기)

지역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Switzerland	Austria, Canada, Netherlands, Portugal
II 그룹 (동구)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Ukraine	Latvia
III 그룹 (중, 남미)		Mexico	Dominican Republic, Panama, Venezuel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India, Japan, Malaysia, Myanmar,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Republic of Korea
V 그룹	(V-a) (아프리카)	Madagascar, Senegal, Togo	Benin, Kenya, Nigeria
	(V-b) (중동)	Kuwait	Jordan, Yemen

6) 모든 이를 위한 정보사업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 이사국: 26개국 (4년 임기)

지역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Austria, Belgium, France	Canada, Germany
II 그룹 (동구)		-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III 그룹 (중, 남미)		Peru, Uruguay, Venezuela	Jamaic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Indonesia, Iran, New Zealand	China, Malaysia
V 그룹	(V-a) (아프리카)	Angola, Cameroon, Madagascar	Congo, Ethiopi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V-b) (중동)	Tunisia	Egypt, Sudan

7) 인간과 생물권 사업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the Programme on Man and the Biosphere)

- 이사국: 34개국 (4년 임기)

지역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Germany, Denmark, Italy	Austria, Israel, Sweden, United Kingdom
II 그룹 (동구)		Belarus, Russian Federation, Czech Republic	Romania
III 그룹 (중, 남미)		Dominica, Mexico, Nicaragua, Peru	Chile, Cub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Myanmar, Republic of Korea , DPR Korea, Sri Lanka	Philippines, Viet Nam
V 그룹	(V-a) (아프리카)	Ghana, Mozambique, Nigeri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go, Ethiopia, Gabon
	(V-b) (중동)	Saudi Arabia	Lebanon, Sudan, Syrian Arab Republic

8) 국제 수문학사업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 이사국: 36개국 (4년 임기)

지역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Germany, Iceland, Netherlands, Turkey	Italy, Switzerland, United Kingdom
II 그룹 (동구)		Bulgaria, Croatia, Russian Federation	Slovakia
III 그룹 (중, 남미)		Bolivia, Brazil, Chile, Mexico	Costa Rica, Haiti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China, India, Malaysia	Australia, Japan, Kazakhstan, Nepal
V 그룹	(V-a) (아프리카)	Congo, Côte d'Ivoire, Eritrea, Nigeria	Benin, South Africa
	(V-b) (중동)	Algeria, Egypt, Morocco, Yemen	Kuwait, Libyan Arab Jamahiriya

9) 불법소유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 이사국: 22개국 (4년 임기)

지역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Canada, Greece, Switzerland	-
II 그룹 (동구)		Azerbaijan, Lithuania	Hungary
III 그룹 (중, 남미)		Mexico	Bolivia, Colombia, Guatemal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DPR Korea, Iran	China, India, Republic of Korea
V 그룹	(V-a) (아프리카)	Eritrea, Mali, Uganda	Angol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V-b) (중동)	Iraq	Egypt

10) 누비아 박물관 및 이집트 국립 문명 박물관 설립을 위한 국제 캠페인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ubia Museum in Aswan and the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in Cairo)

- 이사국: 15개국 (임기 2년)

지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Belgium, Canada, Finland, Greece, Switzerland
II 그룹 (동구)		Latvia, Poland
III 그룹 (중, 남미)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Iran, Japan
V 그룹	(V-a) (아프리카)	Senegal
	(V-b) (중동)	Egypt, Sudan

11)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사업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 이사국: 39개국 (4년 임기)

지역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Denmark, United States of America, Finland, France, Greece	Israel, Netherlands
II 그룹 (동구)		Republic of Macedonia, Latvia, Ukraine	Croatia, Russian Federation
III 그룹 (중, 남미)		Cuba, Jamaica, Peru	Argentina, Barbados, Haiti, Uruguay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Philippines	Afghanistan, DPR Korea, Fiji, Pakistan, Sri Lanka, Thailand
V 그룹	(V-a) (아프리카)	Angola, Cameroon, Congo, Côte d'Ivoire, Nigeri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Senegal	Angola, Burkina Faso
	(V-b) (중동)	Oman, Morocco	Saudi Arabia, Tunisia

12) 사회변형 관리사업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Programme)

- 위원: 이사국: 35개국 (4년 임기)

지역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Finland, Greece, Italy	Belgium, Israel, Sweden
II 그룹 (동구)		Hungary, Czech Republic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Uzbekistan
III 그룹 (중, 남미)		Cuba, Mexico, Peru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Venezuel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China, Fiji, Iran	Afghanistan, Malaysia, Sri Lanka, Thailand
V 그룹	(V-a) (아프리카)	Cameroon, Mali, Senegal, United Republic of Tanzania, Mozambique	Congo, South Africa, Uganda
	(V-b) (중동)	Jordan, Oman	Egypt, Morocco

13) 정부간 생명윤리 위원회 (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

- 이사국: 36개국 (4년 임기)

지역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Canada, United States of America, Italy	France, Germany, United Kingdom, Netherlands
II 그룹 (동구)		Croatia	Czech Republic, Poland, Slovakia
III 그룹 (중, 남미)		Costa Rica, Mexico, Venezuela	Cuba, Peru, Uruguay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China, India, Pakistan, Republic of Korea , Thailand	Japan, Kazakhstan
V 그룹	(V-a) (아프리카)	Mozambique, Nigeria, Uganda	Cameroon, Keny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Senegal, Zambia
	(V-b) (중동)	Saudi Arabia, Egypt, Tunisia	Mauritania

14) 체육교육 및 스포츠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 이사국: 18개국 (4년 임기)

지역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I 그룹 (서구, 북미)		Germany, Netherlands	Greece
II 그룹 (동구)		Albania, Russian Federation	Croatia
III 그룹 (중, 남미)		Costa Rica, Dominica	Jamaica
IV 그룹 (아시아/태평양)		Thailand	Bangladesh, Iran
V 그룹	(V-a) (아프리카)	Côte d'Ivoire	Cameroon, Gabon
	(V-b) (중동)	Bahrain	Oman, Saudi Arabia

15)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이사회 (Governing Board of 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이사국: 개인자격의 12개국 대표 (4년 임기로서 6인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6인은 유네스코 총회가 선출함)

사무총장 임명	기존 이사국	33차 총회 피선국
*Netherlands, *Japan, *Greece, United States of America, Finland, France (* 2005년 임기 만료 기 타는 2007년 임기 만료)	El Salvador, Czech Republic, Viet Nam	Germany, Uganda, Morocco

16)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 이사국: 21개국 (임기 4년)

32차 총회 피선국	33차 총회 피선국
Chile, Benin, India, Japan, Kuwait, Lithuania, New Zealand, Netherlands, Norway	Canada, Cuba, Israel, Kenya, Republic of Korea , Madagascar, Mauritius, Morocco, Peru, Spain, Tunisia, United States of America

다. 주요 규범 제정

이번 총회에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스포츠 반도핑 국제 협약’과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등 3가지의 주요 국제 규범이 채택됨.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금차 총회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 표결을 통해 한국 등 찬성 148개국, 반대 2개국 (미국, 이스라엘), 기권 4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호주)으로 채택됨. 기본원칙,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약과의 관계 등을 담은 35개 항과 분쟁시 화해 절차를 규정한 부속서 6개 항으로 구성된 동 협약은 각 국가의 문화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문화가 일반 상품 및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간 문화 분야의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등 문화 분야에서 국제사회 합의에 의한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님.

2)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금차 총회에서 채택된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은 그동안 유네스코가 제정한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1997년)과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 (2003년) 등 과학기술 윤리규범들에 뒤이은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non-binding) 배아복제 등 세부적인 이슈가 직접 언급되고 있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 지침이 될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

3)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지난 2003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스포츠 반도핑 세계총회에서 ‘세계반도핑규약’ (WADC)이 채택된 바 있으나, 세계반도핑기구가 스위스 지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46개국만 동 규약을 따르는 한계가 있었던 데 비추어, 금차 총회에서 채택된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은 도핑 추방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와 협력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라. 마쓰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 재선

지난 9월 19일 제17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단일 후보로 나서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된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투표 참가국 163개국 가운데 151개국의 찬성을 얻어, 재임에 성공함. (반대 3표 / 기권 또는 무효 9표).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재선 소감에서 자신을 계속 신임해준 회원국들에 감사를 표시하고 임기 동안 유네스코를 더욱 효율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요청에 부응하는 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유네스코 사무총장 임기는 그동안 6년이었으나 제29차 총회에서 임기를 단축한 개정 규정이 이번부터 발효됨에 따라 2009년까지 10월까지 4년간 재임하게 됨.

V. 특별회의

가.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

금차 총회에 앞서 9월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4차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에는 128개국 184명의 청소년 대표들과 45명의 참관자 등 총 229명이 참석하여 ‘청소년과 문명·문화·민족간 대화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 활동방안’을 주제로 토론함. 참가자들은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대화 증진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동지침 및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를 유네스코 총회에 보고함. 특히 한국대표는 청소년 포럼과 연계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차원의 청소년포럼 개최를 제안하여 이를 최종 보고서에 반영시킴.

● 보고서 요지

청소년포럼 참가자들은 문화 및 표현의 자유, 종교 및 문명에 대한 이해 부족이 국제 안보와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을 상기하고 문화 상호간의 이해와 대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노력에 있어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한편 청소년포럼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21세기 인류가 성취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자 도전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 청소년의 참여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가자들은 또한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연대, 존중, 포용, 인권, 다문화주의 등과 같은 가치들이 보다 중시되고 평화 구축 및 화해 활동에 젊은 여성들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네스코 및 회원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

나. 교육장관 원탁회의

10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주제로 개최된 교육장관 원탁회의에는 100여 개국 교육장관 및 세계은행, 유니세프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여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논의함. 특히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 지역 교육장관들은 새천년 발전목표가 정한 2015년까지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 기초교육기회 제공’ 및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의 달성을 위해서는 유엔기구 및 회원국들의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함. 이번 원탁회의에 참가한 교육장관들은 회원국의 역할, 유네스코의 역할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함.

- 성명서 요지

회의에 참가한 교육장관들은 교육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자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필수적 조건임을 확인하면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 (양질의 교육 제공,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성취, 성인대상 문해교육, 유아교육 기회 증대, 기초교육과 직업기술교육 사이의 긴밀한 연계 증진, 교사교육의 역할 강조)의



지속적 장려를 약속함. 아울러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 특히 시민사회와 민간분야 간의 대화 증진, 전 세계적 EFA 사업 이행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조정역할 강화, 공교육재원 활성화 및 EFA 사업 원조의 효과적 활용 등을 다짐함. 한편 회의 참가자들은 유네스코가 주요 EFA 협력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 행동계획 (Joint Action Plan)을 더욱 발전시켜줄 것을 요청하면서 교육분야에서의 리더쉽 강화를 위한 조직의 혁신과 효율화 증진 등을 요구함.

다. 과학장관 원탁회의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기초 과학’을 주제로 개최된 과학장관 원탁회의에는 약 50여명의 회원국 과학장관 및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하여 기초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에서의 기초과학 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함.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과학의 발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새천년 발전목표의 달성에 있어 기초과학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는 한편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성명서 요지

회의에 참가한 과학장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기초과학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과학 지식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이해함. 한편 참가자들은 기초과학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과학교육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나라의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의 과학교육을 강조함. 특히 과학장관들은 ICT 기술 활용 및 역량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끝으로 참가자들은 유네스코가 기초과학 및 과학교육 증진,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정책 지원, 교사 훈련 강화,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 증진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라.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회의

10월4일 개최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위원장 모임에서 Mr. Luis Ramallo 유네스코 스페인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보고를 통해 세계평화라는 유네스코의 궁극적 이상 실현을 위해서는 인류 전체의 연대에 기초해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유네스코의 방향 설정 및 운영에 있어 회원국 정부의 정책결정과 아울러 시민사회의 의견수용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라말로 위원장은 대표부를 중심으로 한 회원국 정부의 결정만으로는 조직의 이상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위원회를 통한 시민사회의 참여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함.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특히 독일, 영국 등은 세계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유네스코를 포함한 유엔시스템도 사업운영에 있어 어떻게 시민사회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함.

마.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비공식 지역회의 (아태지역)

10월 8일 개최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비공식 지역회의 (아태지역)에서 사무국은 2006년 초에 클러스터 회의가 가장 먼저 개최되고, 동년 5-6월 중 유네스코 사무총장 자문회의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림. 이에 이은 토론에서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분산화'와 관련하여 사무국의 보다 구체적인 분산화 방향제시와 함께 분산화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를 요구함. 아울러 지역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한 분산화보다는 지역 내 국가위원회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가운데 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한국의 이상열 사무총장은 분산화 과정에서 유네스코 본부, 지역사무소 및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명료하게 구분되어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유네스코 이름, 약어 및 로고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훈령안이 국가위원회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지적하면서 이의 대안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위원회 로고 제작 검토'를 제안함. 회의 참가자들은 또한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 정상회의' 등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한 3대 주요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이상열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동일 지역 내 국가간 대화는 물론 서로 다른 지역간 대화 사업도 장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아시아-아랍간 대화 사업을 안내함. 한편 한국의 강대근 원장은 그동안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이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왔음을 소개함.

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정부간 과학사업 국내위원회 간의 협력에 대한 비공식 라운드테이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정부간 과학사업 국내위원회 간의 협력 증진을 통한 유네스코 과학사업의 가시성과 영향력 증대라는 목표와 함께 유네스코 대외협력국에 의해 10월 7일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호주, 슬로바키아, 영국, 케냐, 독일의 연

구소, 정부기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과학사업 국내위원회에서 경험과 사례를 발표하였고, 특히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는 IOC 국내위원회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의 연계 촉진을 위해 “Understanding Oceans”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함.

사.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ESD) 관련 토론회

10월 6일, 스웨덴 및 독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토론회에 Ms Vigdis Finnbogadottir, 전 아일랜드 대통령, Mr. Lief Pagrotsky, 스웨덴 교육 연구 문화부 장관, Mr. Wolf-Michael Catenhusen, 독일연방 교육연구부 장관, 이상열 한위 사무총장 등 6명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함. 파그룻

스키 스웨덴 교육 연구 문화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구 선진국이 교육을 통해 생활방식을 변화시켜나갈야 함을 언급했고 핀보가도띠르 아일랜드 전 대통령은 지식은 재생가능한 자원임을 강조함 한편 이상열 한위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모호성과, 각국가의 발전 정도, 문화와 역사, 처한 환경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



문제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요 이슈가 국제적 이슈라는 점에서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깊이 연계되고 있음을 강조함. 동아시아의 경우 아직 과거 제국주의 역사도 청산하지 못하고, 협애한 국수주의로 아직도 서로 반목하고 있어 유네스코의 평화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함.

아. 교육차별 금지 협약의 이행과 보고서 준비에 관한 비공식 정보회의

교육차별 금지협약은 지난 1960년 채택되어 2005년 현재 92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협약으로 10월 13일 개최된 이번 정보 회의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 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이행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소개함. 현재 한국은 미 가입국이나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가입 검토를 요청 받은 바 있어 검토 중에 있음.

VI. 한국대표단 활동

가. 한국대표단 명단 (총 36명)

- 1) 수석대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2) 교체수석대표 : 주철기 주프랑스대사
- 3) 대 표 : 김종일 주프랑스공사
 - 김응권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비서실장
 - 김지준 주프랑스대사관 1등서기관
 - 김명준 외교통상부 통상분쟁해결과 서기관
 - 조기중 주프랑스대사관 2등서기관
 - 김현진 교육인적자원부 국제협력과 교육행정사무관
 - 유지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사무관
 - 김은정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 외무관
 - 조수진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외무관
 - 박희웅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 사무관
 - 김민주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 전문직원
 - 조효상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 직원
- 4) 고 문 :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
 -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강대근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장
 -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 박찬모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 김문환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 오덕성 세계과학도시연합 사무총장
 - 성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
 - 민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이양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제협력팀장
 - 이승미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선임담당
 - 이지향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팀원
- 5) 유네스코 한위대표단
 - 이승환 사업본부장
 - 정우탁 교육팀장
 - 김승윤 과학커뮤니케이션팀장
 - 허 권 문화팀장
 - 윤병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팀장
 -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팀원

6) 청소년포럼 참가자

양정연 대한 YWCA 간사
한명희 연세대학교 영문과 3년 재학

* 유네스코 한위 참관자 명단 (총 5명)

송종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원
임성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커뮤니케이션 팀원
심숙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커뮤니케이션 팀원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원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소년교류팀장

나. 한국대표단 주요활동

1) 업무분장

대표단		총회 참석 기간	주요 업무
	수석대표 김진표 교육부총리	10월3일-5일	본회의 참가, 사무총장 면담
	교체수석 주철기 주 프랑스대사	10월3일-21일	본회의, 주요회의 및 선거 참가
대표	김종일 주프랑스 공사	10월3일-21일	본회의, 주요회의 및 선거 참가/ 대표단 협력 총괄
	김응권 교육인적자원부 비서실장	10월3일-5일	본회의 참가, 수석대표 수행
	김지준 주프랑스대사관 일등서기관	10월3일-5일	본회의 참가, 수석대표 수행
	김명준 외교통상부 통상분쟁해결과 서기관	10월17일-21일	문화분과 참가
	조기중 주프랑스대사관 이등서기관	10월3일-21일	본회의, 주요회의 및 선거 참가
	김현진 교육인적자원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10월3일-5일	본회의 참가, 수석대표 수행
	유지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 사무관	10월3일-5일	본회의 참가, 수석대표 수행
	김은정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 외무관	10월6일-21일	문화분과 및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참가
	조수진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외무관	10월1일-8일	본회의 참가
	박희웅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 사무관	10월8일-20일	문화분과 및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참가
	김민주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 전문직원	10월16일-21일	문화분과 참가
	조효상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 직원	10월8일-20일	문화분과 및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참가
고문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	10월15일-17일	문화분과 참가
	이상열 유네스코한위 사무총장	9월30일-10월18일	본회의, 주요 분과회의 및 특별회의 참 가, 주요인사 면담
	강대근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	10월3일-17일	본회의, 사업지원일반, 교육 및 커뮤니 케이션 분과회의 참가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10월3일-5일	본회의, 교육분과 참가

고문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장	10월8일-15일	교육, 과학 및 문화분과 참가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10월8일-14일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분과 참가
	박찬모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10월10일-12일	과학분과 참가
	김문환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10월12일-18일	문화분과 참가
	오덕성 세계과학도시연합 사무총장	10월1일-6일	본회의 참가
	성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	10월1일-10일	본회의, 교육분과 및 특별회의 참가
	민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0월8일-15일	교육, 과학 및 문화분과 참가
	이양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제협력팀장	10월8일-14일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분과 참가
	이승미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선임담당	10월4일-14일	본회의,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분과 참가
	이지향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팀원	10월9일-17일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분과 참가
	유네스코	이승환 유네스코 한위 사업본부장	10월13일-20일
정우탁 유네스코 한위 교육팀장		10월3일-10일	교육분과 참석 및 교육관련 인사 면담
김승윤 유네스코 한위 과학커뮤니케이션팀장		10월7일-13일	과학 및 커뮤니케이션분과 참가, 과학관련 인사 면담
한위 대표단	허권 유네스코 한위 문화팀장	10월10일-18일	문화분과 및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참가, 문화관련 인사 면담
	윤병순 유네스코 한위 기획팀장	10월3일-12일	한국대표단 총회참가 지원업무 총괄, 행정분과 참가
	전진성 유네스코 한위 기획팀원	10월3일-17일	본회의 및 사업지원일반 분과 참석, 한국대표단 총회참가 지원
청소년	양정연 대한 YWCA 간사	9월28일-10월4일	유네스코 청소년포럼 참가, 본회의 참관
	한명희 연세대 영문과 3년 재학	9월28일-10월4일	유네스코 청소년포럼 참가, 본회의 참관

*** 유네스코 한위 참관단 주요활동**

참관단	총회 참관 기간	주요 활동
송종진 유네스코 한위 교육팀원	10월4일-8일	교육분과 참관
임성호 유네스코 한위 과학커뮤니케이션팀원	10월10일-14일	커뮤니케이션분과 참관
심숙경 유네스코 한위 과학커뮤니케이션팀원	10월7일-12일	과학분과 및 특별회의 참관
김귀배 유네스코 한위 문화팀원	10월13일-18일	문화분과 참관
조우진 유네스코 한위 청소년교류팀장	9월28일-10월4일	유네스코 청소년포럼 및 본회의 참관

2) 본회의 및 분과회의 참가

a. 수석대표연설 (일반정책토론) / 10월4일 오후 Session 첫 번째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b. 분과회의 참가 (5개 사업분과 및 행정분과)

분과별 회의 기간		참가자
분과	기간	
본회의	10월3일-12일, 10월19일-21일	김진표 부총리, 주철기 대사, 김종일 공사, 김응권 비서실장, 김지준 서기관, 조기중 서기관, 김현진 사무관, 유지완 사무관, 조수진 사무관, 이상열 사무총장, 강대근 원장, 김장호 원장, 성경희 선임연구원, 오덕성 사무총장, 이승미 선임담당, 전진성 팀원
행정분과	10월4일-10일	김종일 공사, 조기중 서기관, 이상열 사무총장, 윤병순 팀장
제1분과 (일반/사업지원)	10월11-17일	이상열 사무총장, 이승환 사업본부장, 강대근 원장, 전진성 팀원
제2분과 (교육)	10월4일-10일	이상열 사무총장, 성경희 선임연구원, 강대근 원장, 김장호 원장, 서명선 원장, 황대준 원장, 정우탁 팀장, 민무속 연구위원, 이양숙 팀장, 이승미 선임담당, 이지향 팀원
제3분과 (과학)	10월7일-12일	이상열 사무총장, 박찬모 총장, 서명선 원장, 김승윤 팀장, 민무속 연구위원
제4분과 (문화)	10월13일-18일	주철기 대사, 김종일 공사, 조기중 서기관, 김명준 서기관, 김은정 외무관, 박희웅 사무관, 김민주 전문직원, 조효상 직원, 황우여 의원, 이상열 사무총장, 김문환 교수, 서명선 원장, 이승환 사업본부장, 허권 팀장, 민무속 연구위원
제5분과 (커뮤니케이션)	10월11일-13일	황대준 원장, 이상열 사무총장, 강대근 원장, 김승윤 팀장, 이양숙 팀장, 이승미 선임담당, 이지향 팀원



3) 특별회의 참가

- a.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 / 9월30일 - 10월2일
 - 참가자 : 양정현 YWCA 간사, 한명희 연세대 영문과 학생
- b. 교육장관 원탁회의 "Education for All" / 10월7일 - 10월8일
 - 참가자 : 이상열 사무총장, 성경희 선임연구원
- c. 과학장관 원탁회의 "Basic Science" / 10월13일 - 10월14일
 - 참가자 : 이상열 사무총장, 이승환 사업본부장
- d.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회의 / 10월4일
 - 참가자 : 이상열 사무총장, 전진성 팀원
- e.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비공식 지역회의 (아태지역) / 10월8일
 - 참가자 : 이상열 사무총장, 강대근 원장, 정우탁 팀장, 전진성 팀원, 이승미 선임담당
- f.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정부간 과학사업 국내위원회 간의 협력에 대한 비공식 라운드테이블 / 10월7일
 - 참가자 : 김승윤 팀장
- g.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ESD) 관련 토론회 / 10월6일
 - 참가자 : 이상열 사무총장, 성경희 선임연구원, 정우탁 팀장, 강대근 원장 (이상열 사무총장은 6인의 토론 참가자 중 한명으로 회의에 참가함)
- h. 교육차별 금지 협약의 이행과 보고서 준비에 관한 비공식 정보회의 / 10월13일
 - 참가자 : 이승환 사업본부장
- i. 제15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 10월10일 - 10월11일
 - 참가자 : 김종일 공사, 조기중 서기관, 김은정 외무관, 박희웅 사무관, 조효상 직원, 허권 팀장

4) 주요 선거 참가

- a. 총회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이사국에 선출됨
- b. 국제교육국 정부간 위원회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이사국에 선출됨
- c. 불법소유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이사국에 선출됨.
- d.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이사국에 선출됨.
- e. 제33차 총회 부의장국에 선출됨.

5) 주요 면담 및 업무협의 내용

a. 김진표 교육부총리

i) Mr. Koïchiro Matsuura 사무총장 / 10월 4일

- 배석자 : Mr. Ahmad Sayyad 유네스코 대외협력분야 사무총장보, Ms. Mary-Louise Kearney 국가위원회 및 뉴파트너십 국장, Ms. Emiko De Marmier-Murai 아태지역과 과장, 주철기 대사, 이삼열 사무총장, 김응권 비서실장, 조수진 외무관 외

- 면담 내용

- 김부총리는 현재 매년 10만불씩 유네스코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 신탁기금을 향후 3배로 증액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유네스코가 동 기금을 우리 주변국 교육협력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수행 및 유네스코와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유네스코 사무국내 한국인 직원 증원, 한국인 직원의 승진 문제 등에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사임한 함재봉 사회과학국장 후임으로 임천순 교수가 긍정적으로 고려되기를 희망함.
-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실적주의와 투명한 승진체계 등을 언급하면서 사무총장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으나 관심을 갖고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가급적 한국인 직원들이 지역사무소 근무 등 field 지원을 통해 승진전략을 추구해 볼 것을 권고함.
- 김부총리는 금년 12월 열리는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 Complex 개원식에 동 사무총장의 참석을 바라는 우리 문화관광부 장관의 초청 의사를 전달함.

ii) Mr. Mr Ji Zhou 중국 교육부장관 / 10월 4일

- 배석자 : 주철기 대사, 김응권 비서실장, 김현진 사무관 외
- 면담 내용 : 양국 교육분야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눔.

b.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

i) Mr. Georges Haddad 교육 분야 고등교육국장 / 10월 17일

- 면담 내용 : 프랑스 국립대학교 설립의 역사적, 교육철학적 배경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민간재원을 통한 국립대학 지원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함.

c. 이삼열 한위 사무총장

i) Mr. Pierre Sane 인문사회과학 분야 사무총장보 / 10월 6일

- 배석자 : Ms. Moufida Goucha 철학인문학 과장, Ms. Kristina Balalovska, Ms. Marina Faetanini, 전진성 팀원

- 면담 내용

- 문명간 철학 대화 : 아시아와 아랍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개최와 관련 회의장소 (타워호텔), 토론 참가자 규모 (약 30명 선), Mr. Tu Weiming

을 포함 발표자 초청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함.

- 유네스코 60주년 축하행사 : 행사 잠정 개최일자 (11월 30일),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함.

ii) Mr. Tang Qian 교육분야 Executive office 국장 / 10월 8일

- 배석자 : 정우탁 팀장

- 면담 내용

- 유네스코 주요 공여국인 한국이 EFA High Level Group Meeting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Mr. Tang은 한국이 이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공식으로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함.
- 북한 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과 북한이 직접 교류하는데 대해 찬성함.

iii) Mr. Shigeru Aoyagi 문해 및 비정규교육과장 / 10월 8일

- 배석자 : 정우탁 팀장

- 면담 내용 : 문자가 없는 지역에 한글을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Mr. Aoyagi는 먼저 한국이 문자가 없는 지역 대상 알파벳과 한글을 문자로 보급하여 이의 성과를 비교 연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연구 논문 형태로 발표하여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함.

iv) Ms. Sigrid Niedermayer ASP 담당자 / 10월 8일

- 배석자 : 정우탁 팀장

- 면담 내용

- Ms. Niedermayer는 한국의 ASP 활동을 영어로 본부에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함.
- ASP 제4차 교사워크숍의 서울 개최에 대해 본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 미지센터가 유네스코 ASP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이해교육 활동을 적극 전개하면 ASP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국 Associate Expert 파견을 요청함.

v) Ms. Moufida Goucha 철학인문학 과장 / 10월 11일

- 배석자 : Ms. Kristina Balalovska, Ms. Marina Faetanini, 김승윤 팀장

- 면담 내용 : 문명간 철학 대화 - 아시아와 아랍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개최와 관련 참석자 대상 초청편지 문안 및 기타 업무에 대해 협의함.

vi) Ms. Birgitte Moller 비정규예산 협력국장 / 10월 12일

- 배석자 : 전진성 팀원

- 면담 내용 : Mr. Moller는 Funds-in-Trust 사업 분야에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함.

vii) Mr. Mounir Bouchenaki 문화분야 사무총장보 / 10월 14일

- 배석자 : Sheldon Shaeffer 방콕 사무소장, Mr. Rieks Smeets 무형유산과장, Ms. Teresa Wagner 예술과 직원, Ms. Akatsuki Takahashi 무형유산과 직원, 한준희 문화유산국 직원, 허권 문화팀장, 김귀배 차장, 박혜경 팀원
- 면담 내용
 - 2005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술교육 지역준비회의에 Mr. Bouchenaki를 초청하였고 Mr. Bouchenaki는 이를 고려기로 함.
 - 한국 내 무형유산 지역센터 설립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고 이에 대해 Mr. Bouchenaki는 집행이사회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이를 다룰 것을 제안하는 한편 페루 센터 설립관련 자료를 제공해주기로 함.
 - 한국은 세계유산센터와의 협력 도모를 위해 센터에 한국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임을 알림. 한편 Mr. Bouchenaki는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 보호를 위한 한국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간 신탁기금으로 수차례의 북한 측 전문가 훈련을 실시했음을 언급함. 또한 향후 한국전문가와 북한 측의 연계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함.

d. 이승환 한위 사업본부장

i) Mr. Natarajan Ishwaran 자연과학분야 생태과학국장 / 10월 14일

- 면담 내용
 - 남북한 공동사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 협력에 있어 유네스코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함. 이에 Mr. Ishwaran 국장은 산 생태 공동 연구사업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 등 유네스코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공동 연구사업)에 남북한의 공동 참가 가능성을 제시함 (백두산 및 구원산 등 생물권 보존지역).
 - 몽골,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 개도국 지원 사업 (환경연구 등)에 한국 과학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함.
 - 생물권 보존지역 사업에 한국의 소장 과학자 파견 검토를 요청함.

ii) Mr. Anthony Marjoram 자연과학분야 기초과학 및 공학국 직원 / 10월 17일

- 면담 내용 : Mr. Majoram은 한국이 아태지역 과학기술 교육회의 (Science Technology & Engineering Education: STE 교육)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2007년 STE 국제회의 한국 개최 가능성을 타진해옴.

iii) Mr. Dieter OffenhauBer 유네스코 독일국가위원회 사무차장 / 10월 17일

- 면담 내용 : 한-독 위원회 간 협력증진 및 직원 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함.

e. 김승윤 한위 과학커뮤니케이션팀장

- i) 장광철 교육정책 및 전략국 직원 (북한 출신 본부 직원) / 10월 11일
 - 면담 내용 : 정보통신과 교육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함.

- ii) Ms. Moufida Goucha 철학인문학 과장 / 10월 12일
 - 배석자 : Ms. Kristina Balalovska, Ms. Marina Faetanini
 - 면담 내용 : 10월 11일에 이어 ‘문명간 철학 대화’ - 아시아와 아랍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개최와 관련 참석자 대상 초청편지 문안 및 기타 업무에 대해 계속 협의함.

f. 허권 한위 문화팀장

- i) Mr. Riexs Smeets 무형유산과장 / 10월 11일
 - 참석자 : Ms. Akatsuki Takahashi 무형유산과 직원, Mr. Yoshihiro Higuchi 무형유산과 직원, 박희웅 사무관, 조효상 문화재청 직원 외
 - 면담 내용
 - 한국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 신탁기금 체결과 관련 협정안의 세부내용 협의. 문화재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본부 측은 문화재청이 10월 6일자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였음을 파악함. 그러나 일부 이견이 있는 조항은 추가로 협의하기로 합의함.
 - 협의안 주요내용 :
 - ㄱ) 예산 분배율: 본부 측은 고유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예산 중 본부 사업비중을 40%에서 50%로 증액해줄 것을 요청함.
 - ㄴ) Project Team의 구성: 본부 측은 한국 신탁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project team을 과내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ad hoc working team, focal point 등 별도의 대체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ㄷ) 한국 파견자: 본부 측은 환영하고 이에 대한 이의 없음. 그러나 P1-2급이면 좋겠고 만약 P4-5급이 온다면 이는 본부 인사국 등 고위층의 결정에 속하는 것임을 강조함.
 - ㄹ) Donor의 사업 제안: Donor가 필요시 별도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본부 측은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차라리 유네스코가 필요시 Donor에게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옴.
 - ㅁ) 기타: 본부 측은 동 사업의 협의 진행시, 한국대표부가 공식적으로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 이에 대해 추후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함.

- ii) Mr. Indrasen Vencatachellum 디자인 및 예술과장 / 10월 17일
 - 면담 내용 : 본부 예술진흥국에서 추진 중인 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 사업과 관련하여 전세계 주요 도시를 선정하는 문화 도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옴. 특히 본부인사는 도자기 분야에 경기도 이천이 적임이라는 추천을 해 옴.

g. 기타 (심숙경 과학커뮤니케이션 팀원)

i) 이보람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담당자 / 10월 7일

- 면담 내용: 한국해양연구원이 제안한 쓰나미 관련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사업안의 타당성, 추진 방안 등 협의.

ii) Mr. Natarajan Ishwaran 생태및지구과학국장 / 10월 11일, 13일

- 면담 내용 : Mr. Ishwaran국장은 한국의 유네스코 생태사업(MAB 포함) 참여방안 관련 한국 측에서 Associate Expert나 Senior Expert 파견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VII. 한국대표단 발언문

가.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김진표 부총리)

Mr. President, Mr. Director-General,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join previous speakers in congratulating you, H.E. Musa Bin Jafaat Bin Hassan, on your election as the President of the thirty-third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I am confident that your wise stewardship will lead this Conference to a successful conclusion. We also warmly welcome Brunei Darussalam, who became the newest member of the UNESCO family on the Organization's sixtieth anniversary.

Allow me, Mr. Preside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our great appreciation to the Director-General for his unremitting efforts and guidance to effectively reform the UNESCO and advance its vision and objectives over the last six years.

The delegation would also like to express our consent towards UNESCO's programme for 2006-2007 reflecting the strategic prioritie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r. President,

The year 2005 marks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UNESCO. The historically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UNESCO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n example of the Organization's great achievements.

The Republic of Korea suffered from the ravages of a devastating civil war soon after joining UNESCO in 1950. At that critical period, the Organization extended its educational support and intellectual solidarity to facilitate the nation's effort for post-war restoration, economic growth, promotion of human rights, trend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e Republic of Korea will do its utmost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take an active role in various activities of UNESCO.

Mr. President,

We have learned from experience that educ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overcoming colonial rule and the pain of war, and shaping Korea as it is today.

In order to share the fruits of this historical experience with othe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 in 1989.

More recently, the government provided UNESCO Funds-in-Trust to support the work of underdeveloped countrie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ir "Education for All" plans.

In addition, we wish to promot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sector and relieve information disparity by sharing the best practices of ICT-based teaching. In this regard, we will carry out a feasibility study on the proposal for establishing an online university associated with the UNESCO, which will help narrow digital divides among countries by utilizing the Organization's international networks and Korea's advanced IT technology.

Mr. Presid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ares the responsibility of different peoples and nations so as to prevent and solve conflicts and to build a structure of world peace. In doing so, history educa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imbuing individuals with the ability to understand different peoples and nations as well as in drawing lessons from the past.

In this respect, our delegation urges UNESCO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supporting initiatives by Member States to carry out joint-revision of history textbooks and in reducing tension and conflict.

Mr. President,

Our delegation would like to express special thanks to the Director-General for the recent renewal of the agreement between our government and UNESCO for the Asia 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year 2000.

The Centre will continue to take part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s well as regional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fter years of hard work by a great number of Member States and experts, UNESCO has now brought forth a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

Our government hopes this important convention will be adopted by consensus at the current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We believe that the diversity of cultures may further flourish through dialogue between cultures and civilizations. In this regard,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Korea will host "Inter-Regional Philosophical Dialogues between Asia and the Arab World" this November.

Mr. President,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earlier this year, and made a financial contribution through the Funds-in-Trust programme.

However, it is our conviction tha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olicy experiences needs to be further encouraged among Member States to effectively protect and promote intangible heritages. Korea intends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n Asia-Pacific Regional Centre for Intangible Heritage based on close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in the region.

Once again, we would like to offer our sincere congratulations on solid and successful achievements of UNESCO over the last 60 years. I assure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provide UNESCO with unreserved support as a faithful partner in carrying out its noble miss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나. 제1분과 발언문

- 의제 4.2. 2006-2007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참여사업)

발언 : 이삼열 (한위 사무총장)

Thank you Madame Chair.

In supporting demands and emphasis of several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add its voice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Participation Programme. As you are well aware, Madam Chair, this topic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all of us, for it is not only crucial for UNESCO's profile among Member States, but is also essential for building the capacities of the National Commissions of Member States. Therefore, we believe that Member States should not be discouraged and frustrated by the proposed budget cut of PP.

Concerning the current approval procedure, we would like to request the UNESCO Secretariat to make further effort to improve the speed and transparency of the approval process and to notify respective Member States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so that a Member State can have enough time to prepare for the proposed project. Thank you.

- 의제 4.2. 2006-2007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대외협력)

발언 : 전진성 (한위 기획팀원)

Thank you Madam Chair for giving me the floor.

As clearly spelt out in the constitution, National Commissions are the main relays for UNESCO's work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e importance of each National Commission has to be strongly affirmed and well reflected in the process of elaboration, execution and evaluation of UNESCO programmes.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the Organization's decentraliza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UNESCO field office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is regard, our delegation would like to suggest that National Commissions be involved in evaluating the activities and overall functioning of UNESCO field offices. We believe that these monitoring efforts would provide a supplementary yet nonetheless extremely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Organization's internal monitoring systems.

Concerning the capacity-building of National Commissions, our delegation is pleased to see UNESCO's continu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operational capacity of National Commissions through its Capacity-building Plan. As we all know, staff training is one of the key aspects of capacity-building for any

organization. In this regard, the regional training seminars organized by UNESCO headquarters have particular importance as they are designed to help staff members of National Commissions understand a series of important issues relevant to accomplishing their job. In relation to this, we are pleased to note that our National Commission organized, in close cooperation with UNESCO, the Training Seminar for New Officials of Asian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this March. Thanks to the invaluable support and thoughtful guidance of the section for National Commissions and four UNESCO field offices in Asia, the training seminar was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Republic of Korea is will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UNESCO in the future.

Thank you, Madam Chair.

● 의제 5.21. 유네스코의 미래에 대한 검토 (33C/COM.I/DR.5)

발언 : 이승환 (한위 사업본부장)

Thank you Madam Chair,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the tabled DR is timely and necessary, and has great importance as it addresses the crucially important issue of the future of UNESCO on the occasion of the Organization's 60th anniversary. Our delegation is pleased to support the DR in principle.

However, as for para six of page number two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group, we feel that National Commissions should be also involved in such a critical endeavor, because National Commissions represent intellectual society, a broad spectrum of civil societies, and government officials. We do not believe that the visionary insight for this intellectual forum be further elaborated without the involvement of intellectual circles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the proposed working group consists of only a limited number of 18 member states, therefore there must be complementary measures made in order to reflect the voices of different member countrie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working group.

With this in mind, our delegation wishes to support the modification proposed by Syria and supported by Oman, which emphasizes the involvement of National Commissions and the intellectual community.

Thank you Madam Chair.

- 의제 6.1. 유네스코 3대 기구 간 관계에 대한 임시작업단 보고

- 의제 6.5. 집행이사회 규모

- 발언 : 이승환 (한위 사업본부장)

Thank you Madam Chair,

First of all, my delegation would like to express our appreciation for Mr. Omolewa and the ad-hoc Working Group's strenuous efforts in making such valuable recommendations. We would like to register our general support for the proposal, which aims to achieve a comprehensive and effective reform of UNESCO's governance. However, as for the UNESCO programme management cycle, our delegation is in favour of keeping the current two-year programme management cycle.

Regarding Recommendation 18, my delegation would like to express its preference for maintaining the current structure with the two Commissions, rather than the two proposed options. However, to avoid wasteful duplication of efforts and discussion on the same issues by both Commissions, the agenda items for each Commission should be more carefully selected.

As for Recommendation 20, concerning the reduction in the size of the Executive Board, our delegation wishes to register our concern. It is our opinion that the current problems with the Executive Board is not its size but the lack of transparency in its operation.

Concerning Recommendation 17, which proposes the abolition of the private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our delegation wishes to give our full support. Thank you, Madam Chair.

- 의제 6.3. 유네스코 기관 및 센터(Category I) 와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기관 및 센터(Category II)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및 지침

- 발언 : 강대근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Thank you, Madam Chair, for giving me the floor. Let me start my intervention with congratulations for your wonderful leadership for the successful work of the Commission I.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ppreciate secretariat's effort in preparing for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UNESCO Category I and Category II institutes and centres. We believe that

the principle and guideline for Category I and the criteria for Category II organizations will contribute to further clarifying UNESCO's relationship with respective organizations as well as articulating their respective roles and functions.

However, our delegation feels that the mutual partnership between UNESCO and Category II organizations should be further promoted in applying the new criteria. In order, to ensure the substantial, effective and sustainable contribution of Category II organiza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UNESCO's programmes action, UNESCO should provide them with more chances to be involved in it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activities as well as offer them continual guidance, even after their designation as Category II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stablished in year 2000 as a Category II regional organ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members of the center have attended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s a part of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ing its regional nature described in criteria II/6, we believe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hat the centre dispatch its own delegation to the UNESCO's General Conference as observers. Our delegation believes that UNESCO Category II organizations' attendance at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s independent observers would further enhance communication between UNESCO and those bodies, as well as encourage them to organize their programmes corresponding to the various strategic objectives of UNESCO.

Furthermore, considering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UNESCO, Category II organizations should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consultation and preparation for 2008–2013 Medium Term Strategy and the 2008–2009 Programme and Budget.

Last but not the least, while each UNESCO Category II organization has a different mandate and distinctive specialties, UNESCO should find the best way of making full use of various institutes, especially their complementarities. However, in the designation of UNESCO Category II organizations, UNESCO has to bear in mind that potential duplication in the functions or activities of Category II organizations within same region should be avoided. Thank you.

다. 제2분과 발언문

- 의제 3.2. 2008-2013 중기전략 준비

발언 :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welcome UNESCO's initiatives to integrate literacy and life skills through LIFE (Literacy Initiative for Empowerment) project. It is our strong wish that LIFE project could contribute to satisfying TVET demand created by learners completing basic education. Along with such endeavor,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in 34C/5 and the Mid-term Strategy for 2008-2013 to develop TVET activities and policy in the context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re are too little budget and activities allocated for TVET in 33C/5 draft. Even though the importance of EFA cannot be ignored, the mos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VET, especially for the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to whom TVET is the seed of life. I strongly urge UNESCO to concentrate further on TVET activities in the UNESCO budget and programme for the next biennium and also in the mid-term strategy.

Also, we should recognize an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 needs and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In the developing regions in particula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he priority given to national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VET and HRD. Each country develops its own recipe based on such conditions as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frastructure and poverty. I would like to urge UNESCO to provide further support for Member State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VET policy that suits their national conditions.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which is a UNESCO Regional Center of Excellence in TVET in the Asia-Pacific region, I am proud to tell you that KRIVET has trained about 100 TVET experts and administrators in the region in the past 4 years through its training programs. In order to contribute to developing TVET and eradicating poverty through education, KRIVET will continue its collaboration with UNESCO in the coming year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의제 4.2. 2006-2007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발언: 이삼열 (한위 사무총장)

Thank you, Madam Chair!

Delegation of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 and interconnectedness between Education for All programme and quality Education programme.

Learning to know, how to read and write and count and Learning to do, how to plant rice and potatoes should be related and connected with the purpose of Learning to be, a person of responsibility and tolerance, and Learning to live together with the global citizenship and respecting shared values of peace,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 all agree that the basic education for all and bringing hundreds million children out of schools into primary schools are the priority agenda and task of UNESCO.

However, as our ADG Peter Smith has emphasized yesterday, our mission is not fulfilled or exhausted with basic education for all. We have crossed the bridge only half way. Quality education, value education, behavior education, like how to live together with the people of other culture and faith, how to change our life style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how to survive in ecological crisis and disaster,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Education for All programme. Education for All should be quality education, or qualified education for all.

In this regard Korean government is very much honoured and privileged to established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to promote quality education for culture of peace and sustainability and to implement EIU through teacher training, curriculum development and teaching modules and materials, both in schools and civil society of Asia-Pacific region last 5 years. We would like to contribute further to the development of quality education of UNESCO through this center.

On the bases of these experiences, delegation of Korea would like to request this Commission of Education to be more concerned to strengthen the programme of quality education, specially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rease Budgets for ESD.

Th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declared in 2002 and UNESCO has been committed to be the lead agency of DESD. This year 2005 was the first year of the decade, nearly passed away. But I have not seen many activities or plans of ESD, except a few launching ceremony. Many countries have not started anything ESD, some are struggling with the difficult concept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it is the broad and abstract and contains many conflicts and dilemmas among the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ch country.

Educational policy makers and bureaucrats are hesitating to bring ESD into the school curriculum. They are just beginning to learn that ESD is more than environmental education but do not know how to implement into the existing school system. Teachers are not prepared or trained to teach ESD. There should be some more research and study projects of ESD within UNESCO and its network to develop concept, action programme guidelines of ESD and training programme for teacher and experts.

UNESCO, as the only lead agency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put more energy and time to be the coordinating center of various regional or specialized programme of ESD. However, I do not see the intention or plan in the budget, which allocated only 1.6 million dollars for two years, and no Extra-Budgetary Funds available.

Are we taking our mission, as the lead agency of DESD for whole world, global sustainability, serious enough? We would like to hear responsible answers to this question.

Thank you.

- 의제 5.8.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적 보장관련 지침(안) 마련을 위한 UNESCO - OECD 협력

발언 : 성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

We consider the cooperation between UNESCO and OECD timely and meaningful for establishing guidelines which will contribute to protecting learner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through providing transparent and accurate information on higher education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e urgency of the challenges from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and is now prepar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body,

tentatively entitled 'National Assessment Center for Higher Education'. Our government is also strongly encouraging universities to reform their system.

With regard to the draft guidelines, each country's specific situation and its national sovereignty should be fully respected. We urge that if the guidelines are adopted, UNESCO should pay attention to providing support, in close cooperation with OECD, for national capacity building in Member States who need the establishment or improvement of their national quality assurance system, for the best implementation of the contents in these guidelines.

I would also like to stress that these guidelin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al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successful implementation, UNESCO should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join the Regional Convention and seek measures to strengthen its implementation both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 의제 8.1. 스포츠 반 도핑 국제협약

발언 : 정우탁 (한위 교육팀장)

Doping destroys all the benefits that we can enjoy through sports. Above all, young athletes including student players should be protected from any attempt to sacrifice their health and life for the sake of an immediate victory. Governments in Member States should develop their policies and systems for preventing doping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fforts for anti-doping. It is our strong hope that this Convention can become a practical instrument to eliminate doping in sports.

However, in terms of financial issue regarding the Convention secretariat, all the possible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not to add a heavy burden to UNESCO regular budget. When the Convention is adopted, the Republic of Korea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for its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for enhancing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doping. I strongly urge UNESCO to support Member States' activities to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and promote education on anti-doping by offering them technical advice and also financial assistance in diverse ways.

라. 제3분과 발언문

[인문사회과학]

- 의제 5.11. 세계 철학의 날 선언

발언 : 김승윤 (한위 과학커뮤니케이션팀장)

Mr. Chairman,

The Republic of Korea is pleased to support World Philosophy Day. We also endorse its purposes and action plan as proposed by the feasibility study. We believe that World Philosophy Day will help the exis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on philosophy and philosophy teaching to have a bigger impact on the public. It will also facilitate the creation of new initiatives to reinforce the profound role of philosophy in shedding fresh light on the most fundamental and vital questions of the times.

Mr. Chairman,

Taking this opportunity, I wish to inform you of two philosophical events to be held in Korea. First event is "Arab-Asia Philosophical Dialogue on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to be co-organized by UNESCO and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next month in Seoul. The second one is the 22nd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will take place in Seoul, Korea in the year 2008. This will be the first Congress to be held in Asia. As such, it will be a festival of intellectual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 and also between North and South. It will also serve as an important forum of discussions on one of the most pressing questions today, that is, 'coexistence and mutual enrichment among civilizations.' We welcome any input in the preparation process from UNESCO and its Member States and ask for active participation for the fruitful completion of the Congress. Thank you.

- 의제 8.2. 생명윤리 보편규범 선언

발언 : 김승윤 (한위 과학커뮤니케이션팀장)

Mr. Chairman,

The Republic of Korea fully supports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as it is submitted. I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gratitude for the efforts of the Secretariat and IBC in preparing the final draft through diverse consultation and conferences over the past two years.

Appreciating UNESCO's initiative in setting ethical standards for the rapidly

developing life sciences field with due regard for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nd freedom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is Universal Declaration is no more than the manifestation of basic ethical principles, and that a more important priority is to follow-up the actions of UNESCO and Member States on this Declaration. In this regard, the Korean delegation agrees that follow-up activities including local legislation, and education and dissemination programmes about bioethics should be implemented after the Declaration has been adopted.

Mr. Chairman,

In particular, the Korean delegation would like to emphasize bioethics education could play an essential role in facilitating a bioethically mature society. Therefore the more concrete action programmes to promote bioethics education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should be implemented within the regular programme of the next biennium.

Korea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UNESCO in promoting bioethics in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hrough such programmes as Ethics around the World: Seoul Session of last year, which was successfully organized by UNESCO and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ank you.

[자연과학]

- 의제 4.2. 2006-2007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자연과학)

발언 :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W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comments and suggestions. Although activities on principal priorities such as 'Water and Associated Eco-systems' in the Natural Sciences must be continually and promoted, this should not mean that UNESCO disregards or underestimates th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 needs for other programmes whose contributions are highly by Member Countries. For instance, many activities of the Man and the Biosphere (MAB) Programme are addressing those problems of Member States which require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with an integrative approach of people, nature, culture and the economy, while acting as a major implementing mechanism of related environmental conventions and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ternationally. The proposed regular budget of MAB for 2006-2007 was reduced by approximately a quarter compared

with that of 2004–2005, and this budget cut brings concerns that the proper implementation and sustainability of its important activities may be undermined.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the largest budget allocation in Natural Sciences is designated to a number of water-related activities as their principal priority. Therefore, our delegation propose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ir results, especially their impact on related policies and fields in Member States, and request that this information be reported at the next General Conference.

With regard to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it is notable that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has now grown to 482 sites. In order to make these sites function properly as well as address the growth in numbers, UNESCO should make special efforts to provide professional and technical support to the new reserves and boost more active cooperation among them. In this light, it is very appropriate to set active regional networks as an activity objective in 33C/5, and to reinforce the capacity and professional services of regional offices towards these networks. In the case of the East Asian region, the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EABRN) has successfully carried out activities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including network meetings, research, training, and publica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5. Last August, the 9th EABRN meeting was held at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Republic of Korea with the them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Insular Biosphere Reserves."The meeting proposed and prepared several meaningful activity plans such as a biosphere reserve atlas and a cooperative project for insular and coastal biosphere reserv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Basic Science Programme (IBSP), our delegation welcom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BSP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basic sciences and science education in this century, when their roles are increasingly important as a foundation for the knowledge society, in spite of the public's decreasing interest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express its intention to join the IBSP, as it has great interest in capacity building of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we feel that Member States have not been given 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me, and that the procedures for creating the

Scientific Board and the criteria of project selections need to be explained. We would like to request UNESCO to put more emphasis on regional cooperative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based projects from Member State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organized the 'International Forum on Reform and Innovation in Science and Engineering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jointly with UNESCO in September this year. The forum proposed a network for exchanging best practices, promotion of education licenses, development of cooperative models between universities and high schools, and the sharing of university-industry partnership models. In addition, it was recommended that UNESCO assist in the information exchange of best practices and promotion of new approaches.

● 의제 5.6. 세계적 쓰나미 경고체계 설립을 위한 전략

발언 :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ighly appreciates UNESCO/IOC's rapid and successful reaction to last December's tsunami,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Group for the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and Mitigation System. We consider the strategy to develop early warning systems on ocean-related hazards including Tsunami very timely and feasible, and fully support this global strategy. In the early warning system, rapid dissemination of warning is as important as the warning's accuracy, and activities for capacity building and disaster risk mitiga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The Republic of Korea is willing to participate in UNESCO/IOC's efforts to establish an early warning system in the Indian Ocean and to build the capacities of ocean-related hazard preparedness of individual states by means of training and education, IT and communication, research and assessment and the support of necessary equipment and technologies such as deep sea pressure sensors. We believe that our ten years' experie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developing countries in marine fields, highly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operation of an unmanned ocean research station could be fully utilized to contribute to these projects.

● 의제 5.14. 2007년 유엔 국제 지구의 해 선언

발언 : 심숙경 (한위 과학커뮤니케이션팀원)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the proclamation of a "UN International Year of Planet Earth" would be very meaningful in promoting the use of scientific knowledge for the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natur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 and raise awareness of their importance. Therefore, we support all the Director-General's efforts made towards the year's proclama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 의제 5.10. 국제 물 위험요소 및 위기관리 센터 (ICHARM)' 설립 (일본 소재)

발언 : 심숙경 (한위 과학커뮤니케이션팀원)

The Republic of Korea has strongly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Water Hazard and Risk Management (UNESCO-ICHARM) in Japan since its initial preparatory phase. Recognizing the pressing needs of international research and management, and mutual cooperation relating to increasing water hazards and risks such as floods, our delegation is convinced that the center is indispensable, particularly for assisting potential victim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located close to the center, hopes that our relevant experts coul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center's activities.

마. 제4분과 발언문

- 의제 3.1.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준비

발언 : 서명선 (여성개발원장)

Mr. Chairman, Thank you for giving me the floor.

My delegation would like to make several suggestions and comments, mainly on the principles and priorities of the action programme to be implemented during the years 2008-09.

Mr. Chairman,

We are now witnessing the rapid changes of lives and culture in times of globalization and the information revolution. Accordingly, my delegation strongly believes that the preparation of the 34C/5 documents should focus on the programmes and activities that fully reflect the newly emerging demands of our times, with a basis on the critical evaluation of the last 6 years' activities.

To begin with, more emphasis should be laid on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present cultures and people's lives today as well as the preservation of the past legacies of humanity. It is quite evident that programmes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have made contributions to increasing the visibility and credibility of UNESCO. However, it is our sincere hope that due consideration should be placed on the development of more innovative programs focusing on the present time and contemporary cultures.

Second, as the other delegates mentioned clearly, my delegation also emphasizes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cultural diversity should be the core element of the 34C/5 documents. Mr. Chairman, as you acknowledge, cultural diversity is a source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More systematic and concentrated effort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with the cooperation of the member states.

Third, my delegation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issue of developing cultural policies of Member States. As you are aware, most Member States are now in a critical phase and reformulating their cultural policies to meet newly emerging challenges in contemporary society. I do

believe that UNESCO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the provision of intellectu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he formulation of the cultural policies of Member States. Furthermore, new trends and concepts in cultural policies should be reflected more in future programs. For example, the cultural rights of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women, youth, and immigrants should be fostered more, so that these groups can not only have increased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al programmes, but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ultural production.

Mr. Chairman,

Last but not least, it is my observation that the arts have been relatively less emphasized in past programs. Considering the intrinsic value of the arts as a source of creativity, further efforts to implement arts programmes need to be strengthened in the next biennium. We are looking for diverse programmes for improving and enhancing the artistic capabilities of people.

These are several points that need to be fully respected and reflected in the formulation of the cultural programmes for 34c/5. In addition to this, I remind you that my delegation has much concern with the consistent efforts of UNESCO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rogramme implementation in view of its decentralization policy.

In final, my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ives our full support to 33 C/COM. 1,2,3,4,5/DR 1 and 33C/COM 2,3,4,5/DR 1.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의제 4.2. 2006-2007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발언: 허권 (한위 문화팀장)

Thank you, Mr. Chairman, for giving me the floor.

To begin with, on behalf of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convey my warm congratulations to you on your election as Chair of this significant Commission.

My delegation is pleased to endorse and support the principal priority of Major Programme IV, which focuses o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with special emphasis o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nd welcomes every effort made by the Secretariat, especially Mr. M. Bouchenakee, ADG for

Culture, for the preparation of this 33C/5 document.

In relation to budget distribution, although we are fully aware of the consistent efforts of UNESCO in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programmes and activities, we regret to indicate that those programmes of artistic creation, cultural policies and culture industries, which are vital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seem to be less emphasized in terms of budget allocati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ne of the primary concerns of the Republic of Korea. We ratifi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enable its earlier enforcement. Bearing in mind the wide scope of intangible heritage and its urgent need of protection in times of globalization, we will make further contributions to the improvement of capacity-building of Member States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Asia-Pacific Regional Centre based on close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in the region.

Mr. Chairman,

My delegation appreciates the continuous efforts of UNESCO to implement the follow-up project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line with this,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my country will promulgate a "Culture Charter" in November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t the national level.

We support UNESCO's role in implementing, promoting and evaluating the cultural policies of Member States. In this globalized world of increasing cultural exchanges,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Cultural Indicator is very important.

My delegation also commends UNESCO's efforts to promote dialogue among cultures. Especially, we regard the "Communication among Cultures and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programme as a major step to illuminate peaceful co-existence for future generations, and we believe a project of this sort would promote a culture of peace in East Asia. We hope UNESCO will actively support joint projects to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s and history of the region.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programmes relating to the Status of Artists and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the synergy achieved by incorporating the Education for All and higher education programmes of the education sector. The UNESCO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is being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and will take place this November in Seoul.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and arts education, we firmly believe that UNESCO needs to give priority to this field. We would also like to emphasize that further measures shall be taken to implement the outcome of the World Conference, such as regularly organizing a world conference in this field. My delegation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wish to organize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in due course.

● 의제 4.2. 2006-2007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33C/DR.10

발언 : 허권 (한위 문화팀장)

Mr. Chairman,

It is my view that DR 10 seems to be quite relevant in view of the need to balance the activities of each legal instrument adopted by UNESCO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heritage. In fact, my delegation has always been concerned with the imbalance of activities and budget allocated to each convention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became a successful and useful instrument thanks to the active involvement of Member States and the continual efforts of the Secretariat. However it is true that other conventions, particularly the "2001 Underwater Heritage Convention," are not well known. Each convention has been adopted at the General Conference to achieve specific objectives that are quite relevant to the need to preserve priceless heritage from the threats of humans and nature.

However, Mr. Chairman, I recall to you that the situation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conventions, in terms of its scope and degree of urgency. Furthermore, it is quite evident that the priority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quite low in most countries.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even well known in some countries.

Korea is very pleased to learn that 26 Member States have already ratified the

2003 Convention. It is time to start the necessary programmes relating to this Convention, which was unanimously adopted two years ago.

My delegation supports the budget plan that was prepared and presented to us by the Secretariat.

- 의제 5.12. 불법 반출.입 문화재 반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발언 :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

Thank you, Mr. Chairman.

As a member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ICPRCP), the Republic of Korea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devoted in finding the ways of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Committee at the last 13th session of the Committee.

As the unique international entity handling the issue of the return and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my delegation firmly believes that the Committee's role needs to be significantly strengthened.

Keeping the importance of the Committee's role in mind, let me introduce the recent positive development in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treasures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On October 12 this year, Korea and Japan agreed that Japan return 'Pukkwon Taechop-bi', an ancient monument which Japan had taken away from Korea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The monument was erected in 1707 to commemorate a Korean general, Jeong Moon-Bu, who had fought against Japanese intrusion in the 16th century. Another agreement has been reached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return of 3,186 items including Koryo ceramics.

With regard to the return of the Royal archives originally belonged to Korea's Royal Library (Wai-Kyu-Jang-Gak), bilateral negotiation is under way.

Finally, Mr. Chairman, on this occasion, my delegation would like to express our government's willingness to host the 14th session of the Committee in Seoul, if elected as the member of the Committee at the election scheduled on next Tuesday.

Moreover, my delegation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our government intends to make a sum of voluntary extra-budgetary contribution to UNESCO to promote the Committee's activities, and it is now undertaking necessary domestic measures to this effect.

Thank you, Mr. Chairman.

● 의제 5.3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센터 설립제안 (페루 소재)

발언 : 허권 (한위 문화팀장)

To begin with, my delegation warmly welcomes the initiative taken by Peru and expresses our gratitude to UNESCO for its efforts in the preparation of this excellent document. We fully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centr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a region of rich and diverse culture. We note with satisfac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centre has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good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Member States in the region.

In line with this, as clearly mentioned in the statement made by our head delegate at the plenary session and the intervention during Debate 1 of this Commission IV, I am pleased to reconfirm that we would like to work together with Member States in our region for the creation of an Asia-Pacific regional centre which would have similar functions to that of the Peru regional centre. We are looking forward to exchang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with the Member Stat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 의제 8.3.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 초안 및 이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발언 : 김종일 (주프랑스 대표부 공사)

Mr President,

My delegation voted in favour of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at this 33rd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Since this Convention includes the basic principles,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its adoption is beneficial and desirable for fostering a favourable environment which shall enhanc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ll over the world.

Mr President,

In adopting this Convention, my delegation expresses its regret on the adoption of this Convention by voting, not by consensus, as we would have wished. We believe that unanimous support on the adoption of this Convention could have paved the way towards a universal application of this important Convention.

Moreover, our delegation must add its regret over some of the ambiguous wordings of the Convention. Though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come up with a clear and precise wording of the Convention since the first intergovernmental meeting convened in September, 2004, some of the articles of the Convention were not fully clarified, and may be open to divergent and controversial interpretations.

In this regard, my delegation emphasizes tha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stated in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In particular, Article 20 stip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Convention and other treaties shall not be interpreted as being able to influence, modify and compromis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are stated under other treaties.

My delegation believes that measures to be taken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ust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is harmonious and consistent with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other fields as well as the cultural field.

Mr President,

I would like to ask that this statement be duly recorded in the official document. Thank you.

바. 제5분과 발언문

- 의제 4.2. 2006-2007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채택

발언: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Thank you, Mr. Chair,

The Republic of Korea is pleased to support UNESCO's decision to give its principal priority to "Empowering people through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with special emphasis on freedom of expression". Considering that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pen new opportunities for human development, universal access to information and capacity building through ICT in the competencies of UNESCO should be further emphasized.

With this general observation, I would first like to suggest that UNESCO take initiatives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nd enhance ICT capacity-building in a more integrated, systematic manner. Based on our experience in the "Global Partnership for ICT in Education" project for developing countries, ICT infrastructure alone is not enough for ensuring digital opportunities for all. Thus, ICT equipment should go together with software, content and teachers' capacity building as an integrated knowledge package.

As of September 2005,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provided 15 developing countries with PCs and training programmes for their educational policy-makers and teachers to enhance the effective use of ICT in education. Korea wishes to further expand this initiative based upon the outcomes of assessment. We also consider, as an organizational level approach, a feasibility study for establishing an online university associated with UNESCO, which was mentioned by our Deputy Prime Minister Kim Jin-Pyo in order to alleviate the digital divide.

Second, UNESCO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addressing the side effects of informatization such as infringement of privacy, misuse of personal data and internet addiction through various initiatives. As the member states have been informed, the "International Forum on Privacy Rights in the Digital Age" organize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last month in Seoul, adopted a declaration and launched the Privacy Protection Network to promote privacy protection.

Efforts for privacy protection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balanced, simultaneous actions at technology, information ethics and social movement levels. Such approach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levant policy-making process of the member states. Korea will also continue to work with UNESCO to throw light on the shadows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ird, as UNESCO pointed out, promoting the effective use of ICT i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is essential in this knowledge society.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strategy, inter-sectoral cooperation between the Education and Communication & Information Sector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Especially, the third 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thematic meeting recognized shaping of new paradigms of ICT and learning. Extensive and in-depth research and studies should follow in order to identify and develop innovative teaching-learning models and methods for future education environment.

In this endeavour, stro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among member states would be essential.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operate with UNESCO and other member states to share our successful achievements on the use of ICT, human capacity-building, and overcoming the digital divid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 의제 3.2. 2008-2013 중기전략 준비

발언 임성호 (한위 과학커뮤니케이션팀원)

For the preparation of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for 2008-2013, we would like suggest three points for the next medium-term strategy.

1. "Global network formation for the ICT cooperation"

As is being suggested by vice-prime minister "Kim Jin-Pyo" in the republic of Korea, we, Korea, would like to contribute through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on-line university associated with UNESCO. Without such a global network, systematic network, quality enhanced network, it's difficult to change the situation of digital divide between the have and the have-not. So,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totally different, global, and systematic approach to stimulate for the have countries to contribute for the realization of the

dream of UNESCO.

2. As we have already mentioned yesterday, we have go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vacy right in the digital age", and have diffused the output of this conference to the UNESCO family. We also have informed them of the PPN (Privacy Protection Network) as a global network, composed of great scholars representing the region of Europe, America, Oceania, Asia. For the future sustainable leading role of UNESCO in the digital age, we need to share our energy wisely to deal with the side effect of technology like a privacy problem. So, privacy right should be regarded as a human right in the digital age, and UNESCO need to do a sustainable leading role in the ideological field like the issue of the privacy as human right.

3. "E-learning and Media education"

We need to consider deeply the honorable ADG Dr. Kahn's statement and his emphasis on the culture of information, those are ① information literacy, ② information preservation, ③ legal, social and ethical aspect of information.

Today, the slogan in the communication field of UNESCO has changed from "the technology in the service of humanity in 1980s" to "ICTs in the service of education, science,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rights". For the knowledge society and to go further step forward to realize the culture of information in the next medium-term strategy,

We need to approach more comprehensive approach, and focus on the media education and E-learning. So for the future UNESCO activity in the communication field, we need to consider the guideline of E-learning, and establishment of the media education global network for the successful launching of UNESCO communication activity in this ICTs field.

사. 행정분과 발언문

- 의제 10.10. 직원 의 지리적 배분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발언 : 이삼열 (한위 사무총장)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ppreciates UNESCO's continual endeavors to improve the geographical balance of staff within UNESCO. UNESCO's newly adopted measures, including the 'Promotion of Vacancies in Non- and Under-represented Member States,' 'Review of Recruitment Process,'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and other proactive measures have certainly contributed to an improvement i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Non- and Under-represented Member States. However, 29 percent of Member States are still identified as Under-represented countries while 16 percent are not represented at all within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Asia & the Pacific and Latin America still remain the regional groups for which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s well below the minimum quotas. In this regard, our delegation would like to request the Secretariat to further improve the level of recruitment from the Asia & the Pacific and Latin America regions.

Over the past few years, the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has mad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geographical distribution by recruiting new staff members mainly from Non- and Under-represented Member States. However, most of the new staff members recruited through this programme are classified as either P-1 or P-2, the lowest grades of the staff hierarchy. Considering the existing calculation methods of geographical quota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of "weight" between junior, mid-level and senior posts, the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might contribute to the increased level of geographical representation but might not solve the probable unbalanced representation across the staff hierarchy within the Secretariat. Our delegation believes tha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more accurate reflection of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acros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Secretariat. Therefore, we support the introduction of a post-weighting system, which, we believe, might well compensate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practice.

Concerning the retirements foreseen over the next five years, it is expected that these upcoming vacancies will provide the Organization with an opportunity to improve further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Non- or Under-represented countries. It is our strong hope that during these changes,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regional groups at Director level and above be greatly improved.

Last but not the least, as for the increase of the base figure by 40 units as proposed at the 167th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our delegation supports the conversion of language posts from "non-geographical posts" into "geographical posts," with the corresponding increase of available positions expanded from 850 to 890 posts, since the criteria for selection to these posts are based on expertise and competence, just as for other posts.

아.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ESD) 관련 토론회 발언문

발언 : 이삼열 (한위 사무총장)

Thank you Chairman Mr. Kenneth Wiltshire,

Out of my experiences as the Director of APCEIU, which was established to promote education for the culture of peace and sustainability in 2000, I would like to bring my panel contribution in the following 3 points.

1. Firstly,

When we are going to implement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certain country or in a certain school, we are confronted with the first difficult question, what is the concept of ESD? And how should we define and explain Sustainable Development to students or children?

There have been sev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workshops to prepare and to plan for the Decade of ESD, organized by many countries in Bangkok, Beijing, Okayama, Goeteborg, and Seoul.

But I heard in every workshop, national or international at the beginning, this question and complain about the difficulties in explaining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ten we use the definition of SD, which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as made in "Our Common Future," so-called Brundland report. Tha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generation without sacrific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own needs."

This definition seems to be very appropriate and rational, but it is not easy to teach children this concept. It might take a whole semester to help them understand this definition.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ises from the excessively broad agendas and tasks set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sustainable future is not possible unless all kinds of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urvival of life are secured, like water, food, clean air, social peace, human rights and gender equity and unless all the problems of poverty, environmental degradation, wasteful consumption, population growth, health crises and illiteracy are solved, sustainable development demands

massive tasks and unlimited work to do.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es almost everything in our hopes and visions for a better quality of life. Then a question is raised, "How do we educate our people to realize all these goals and values, when they are struggling to solve the urgent problems of meeting their basic needs, which differ from society to society?" So we are coming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ontextual understanding and approaches to ESD.

As many researchers have pointed ou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merged in the 1980s in response to a growing awareness of the need to balance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with the integrity of the environmental nature.

However, various movements and discourse on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since deepened and further elaborated the concept and broadened its many dimensions and interpretations, bringing about a very dynamic and evolving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 sustainable development as an ideal goal has to be based on the comprehensive, holistic understanding of its concept. But, when we are about to practice and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concrete situation in country or region, we should shape the concrete, contextualised concept and practical strategies according to the social needs and historical context.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2002 in Johannesburg emphasized the concept and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comprehensive one that includes the three pillar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justic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ocial cohesion.

However, the practical strategies and approach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ch country and region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untry's stage of development and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differing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e often in conflict, and sometimes produce a dilemma. For example, in China, sustainable economic policy compels the restriction of population growth, so that every family is prohibited to have more than one child. However, this policy is regarded as a suppression of human rights. Economic growth usually creates a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requires sacrifice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growth.

It was clearly expressed in Johannesburg that the majority of developing countries could not but set their priorities on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fulfill their basic, present needs of survival, like food, water, housing and education, while developed countries showed more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reatened their sustainable future.

One may say that each country should pursue different strategies and prioritize their own tasks for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t I think one must not los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imit its concern and struggle only to contextual strategies and to implementing immediate projects.

I think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balance and tension between holistic understanding and contextualised strategi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oals and vi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be understood holistically and comprehensively, but practical strategies and education tasks should be approached contextually.

Like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also a broad concept, and implies all kinds of teaching and learning to develop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for a sustainable future, and to promote the consciousness and awareness of sustainable behavior and lifestyle. So ESD cannot be a subject or one discipline in the school curriculum, but should be implemented in all subjects with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So, ESD should emphasize aspects of learning that enhance the transition to sustainability and empower people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creating sustainable future.

2. Secondly,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importance of interconnectedness and cross-fertilization between ESD and EIU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ur educational practice and teachings in the schools often forget the importance of the global, or regional contexts and conditions, but tend to confine ourselves to national problems of economy, ecology and society.

In an era of rapid and intense globalization, the problem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justice cannot be solved solely through national mechanisms and policies.

Industrial and financial conditions are today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ructures of power and trade.

Environmental questions like nuclear dumping in the ocean, the pollution of trans-border rivers, can not be solved by the struggles of one country or its national policy.

Ecological problems like desertification, disappearing Ozone layer, sandstorms, floods and tsunamis, and climate change can not be understood and analyzed correctly, without knowing the patterns of human life, ways of agricultural, industrial production and population growth and mass-consumption styles in the global and international context.

And the problems of hunger, water and AIDS in Africa can not be solved, so long as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re not ready to help and repay their historical and ecological debts.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hich aims at clarifying the root causes of human suffering, starvation, disease, war and violent conflic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and teaches values and ways of living together in peace and harmony, should accompany all educational activ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future of human and ecological life. ESD cannot exist without EIU.

3. Thirdly, lastly

As I am from the Asia-Pacific region, I would like to reflect on what specific tasks and issue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specially in East Asia, should be concerned about.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are living in our region with the most diverse traditional,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 Many Asian countries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past colonial history, division, conflict, war,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Specially countries in North East Asia, need seriously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ful community building for the common sustainable future.

The countries of North East Asia, Korea, Japan, and China, must now admit our failure to educate our citizens to build a peaceful community for last 60 years,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while countries in Europe have successfully overcome their past history of conflicts and war, and built a peaceful European Union, even equipped with the common currency Euro.

Frankly speaking, Education in our region over the last half century has been heavily burdened by narrow minded nationalism and national interests.

It is a enormous task to change the paradigm of education toward a peaceful and sustainable future. But this task can not be realized by one country alone.

That is why we need to strengthen this ESD movement in solidarity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could be and should be facilitated and promoted by UNESCO, as the lead agency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whole world.

Thank you.

자.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 발언문

Suggestion from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SCO's Section for Youth- Bureau of Strategic Planning.'

We would like to kindly ask the 'UNESCO Section for Youth' to encourage and support National Commissions to hold national, regional, sub-regional and inter-regional youth forums between the 'UNESCO Youth Forum' held every two years.

Three days of discussion definitely was not sufficient to talk in-depth about the various issues, but also to understand and place ourselves in the shoes of the others from diverse backgrounds.

We are aware that there already exists numerous youth forums around the world hosted by universities, organizations etc. However, UNESCO should encourage and support National Commissions – using its international network – in order for youth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situations of other parts of the world; we should open our ears to voices from all corners of the world and efficiently collect proposals from around the globe.

Thank you very much.

VIII. 참고자료

가. 북한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김향산 주프랑스대사)

** 북한수석대표는 한국어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아래의 전문은 북한 대표부에서 제공된 번역문임을 밝힘 **

Mr. President of the General Conference,
Mr. Chairperson of the Executive Board,
Mr. Director-General of UNESCO,
Distinguished Delegates,

First of all, on behalf of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 wish to extend warm congratulations to you, Mr. Musa Bin Jafar Bin Hassan, on your election to the presidency of the 33rd General Conference, which takes place in a meaningful year of 60th founding anniversary of UNESCO. I am also pleased to assure you, Mr. President, of our full collaboration for the successful undertaking of this conference.

Allow m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Director-General Mr. Koïchiro Matsuura for his effort in reforming UNESCO as an intellectual organization that can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this century.

Mr. President,

The principle that guided the creation of UNESCO sixty years ago was to build a peaceful, co-operative and co-prosperous new world, a world with no war and confrontation. However, this basic aspiration of humanity is yet to be achieved.

Unilateralism and policy of domination ove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rought in a vicious circle of terrorism and conflicts, mistrust and confrontation; furthermore, the wide divid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fields of education, sciences, cul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inflicting serious, negative effect on the civilization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of humankind.

Contrary to the lofty mission of education to instill peace in the minds of human being,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UNESCO, the text books

which beautified the past history of aggression are included in the curriculum for the younger generations in Japan which in the past imposed war disasters on humankind. The introduction of such history textbooks causes a serious concern among Asian countries.

The present reality requires that UNESCO strengthen its mission and role to build an intellectual foundation of peace and equalit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sciences, culture and etc.

Mr. President,

During the past two years, UNESCO has fulfilled its mandate, with its main priorities on Education for All, water and related eco-systems, bio-ethics, cultural diversity, while continuing its progress of further decentralization.

DPRK takes note of UNESCO's critical review of its Post-Dakar role, as well as of its ensuing contribution to improving quality at all education levels and stages, to providing Member States with education policy formulation and capacity building support and to mobiliz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effective assistance to Education for All.

DPRK appreciates UNESCO's active and continuing role in taking appropriate measures to solve the global water issues, developing joint programmes with the Third World Academy of Sciences (TWAS) and other organizations as a follow-up to the International Basic Science Programme, establishing international norms relating to ne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ndings such as genome science, cloning and etc.

During the last biennium, 58 new sites wer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he promotional action for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 to enter into force has continued.

The DPRK delegation believes that the "Draft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and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s", which will be adopted at this General Conference, are the results of UNESCO's persisting efforts over the past two years for ensuring sound life science and sports ethics.

UNESCO's capacity to cope with global issues was well demonstrated by the immediate measures it took to respond to the aftermath of the tsunami of end-2004 in the Indian Ocean and the initiative of the Director-General on the creation of a global tsunami warning system.

Mr. President,

If UNESCO is to fulfill its mission and role in the new century, we think it necessary for UNESCO to constantly improve its working modalities, procedures and its effectiveness.

In this connection, the DPRK Delegation appreciates that the Ad-hoc Working Group, established under the 32 C/Resolution 81, has submitted to this General Conferenc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aiming to strengthen the respective roles of the General Conference, the Executive Board and the Secretariat.

In particular,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adoption of procedures to ensure the rotation of membership on the Executive Board will give all Member States equ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us providing greater democracy i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The DPRK Delegation expects that UNESCO will, in the next biennium, continue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its competence and fulfill its role and responsibilities in its capacity of intellectual platform for contributing to peace,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orld.

Mr. President,

The DPRK Government has been according great importance to education, sciences and technology in conformity with our priority policies for education and sciences, as well as to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s.

Particularly, while consolidating the universal Eleven-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which started in 1972,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DPRK has been giving special attention to developing to an advanced level the information technology, life science, cloning 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During the last two years, DPRK and UNESCO have developed satisfactory cooperation.

The inscription of Koguryo Mural Tombs, the precious heritage of universal value of the Korean nation, into the World Heritage List at the 28th session of World Heritage Committee, held in July 2004 in Suzhou, China, was a clear manifestation of the validity of DPRK Government's policy of preserving national cultural heritage and excellent collaboration with UNESCO.

Two rounds of training seminars were held in Pyongyang on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preservation of Koguryo Mural Tombs, and the preparation is under way for inscribing the relics of Koryo Dynasty of Kaesong Area onto the World Heritage List.

I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sincere thanks to Director-General Mr. Koïchiro Matsuura, as well as to the World Heritage Centre and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for their active cooperation and support in the inscription of Koguryo Mural Tombs into the World Heritage List.

Some other examples of fruitful cooperation with UNESCO over the past two years included, to name a few: the nation-wid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MIS)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Headquarters; registration of Mt. Kuwol as a new UNESCO International Biosphere Reserv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everal projects with UNESCO Offices in Beijing and Bangkok; and participation at the 4th Children's Performing Arts Festival in East Asia, held in Macao in July 2005.

Mr. Presiden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till remains strained 열 새 the unchanged hostile policy of the US towards the DPRK, in particular DPRK-US confrontation around the nuclear issue.

The United States, with its inveterate policy of negating our system, has pursued unjust pressure and unprecedented economic sanctions against DPRK for over half a century, which has caused enormous obstacles to overall national development, including education, sciences and culture.

However, the Korean people, in a hearty response to the Songun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 General KIM JONG IL, have been endeavoring to defend their national sovereignty, to build a prosperous and powerful nation, and to achiev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under the banner of the Great National Unity.

This year, the north and the south of Korea joined each other in meaningfully commemorating the 5th anniversary of "Historic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and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This was an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accelerating the reconciliation, unity,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nation according to the "By Our Nation Itself" principle and contributing to ensuring last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DPRK Government will, in the future, too, activel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efforts for world peace by intensifying cooperation with UNESCO and all other Member States under its constant foreign policy of independence, peace and friendship.

Thank you.

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북.일 공방

1) 일본 (Mr. Teiichi Sato, 주프랑스 대사)

Thank you, Mr. President. Mr. President, first of all, allow me to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special opportunity to reply to the stat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history education issue.

In its statemen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sists that history textbooks which it asserts beautify the past history of aggression are included in our curricula for the younger generations in Japan. I have to say that this is incorrect. Eight junior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wer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this year. None of those textbooks, however, ever glorify Japan's history of colonial rule and aggression.

The courses of study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stipulate that history education in Japan shall be aimed at ensur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leading to the war,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Asian countries and Japan, and to the fact that the past war caused suffering among humankind at large. All those textbooks wer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textbook approval standard, which stipulates that textbooks must satisfy those requirements for the four set courses of study. Thank you, Mr. President.

2) 북한 (김향산, 주프랑스 대사)

Thank you, Mr. President, for giving me the floor. As is well known to all of you, distinguished delegates, on 5 April 2005,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Japan approved distorted history textbooks, despite strong protest and opposition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These distorted textbooks beautify and embellish the brutal colonial rule over Korea, which included, to give just a few examples, forcing 200,000 Korean women into sexual slavery for the Imperial Japanese troops, drafting 8.4 million Koreans into the shambles of war and slave labour, and plundering and destroying of hundreds of thousands of cultural properties and historical relics.

The textbooks falsify these truths by describing that war of aggression, which brought unspeakable pain to the Asian people, as a war of self-defence, and even as a war of liberation. The textbooks even claim that Dokdo Islet, the

sovereign territory of the Korean Nation, is simply part of Japanese territory. Such actions on the part of Japan are just insult to the entire Korean people – North, South and abroad – who suffered so much from the brutal colonial rule and wartime atrocities. This only serves the purpose of further instilling wars in the minds of young Japan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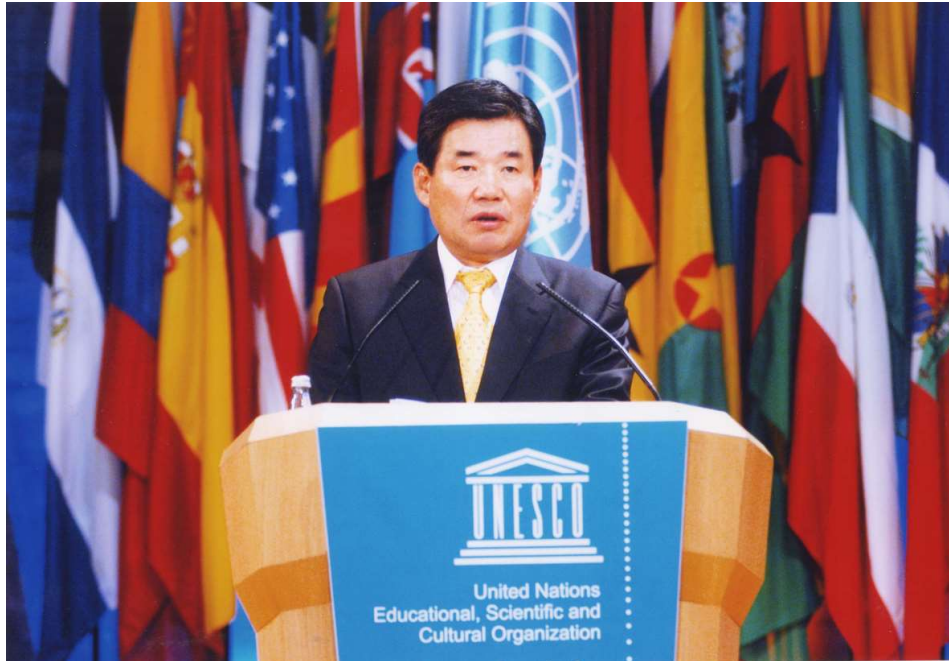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by distortion, nor be erased by an attempt to cover it up. Asian nations will never, ever forget the criminal history of Japan, and will never tolerate such an attempt.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trongly urges Japan to learn from the example of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withdraw its adoption of distorted textbooks, and offer an honest apology and compensat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Thank you, Mr. President.

3) 일본 (Mr. Teiichi Sato, 주프랑스 대사)

Thank you, Mr. President, for giving me the floor agai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reconfirm that the Japanese education system is, needless to say, in full compliance with UNESCO's Constitution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I would like to state that we have different views referred to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ing said that I believe this is not the right place to discuss this. Thank you very much.

IX. 한국대표단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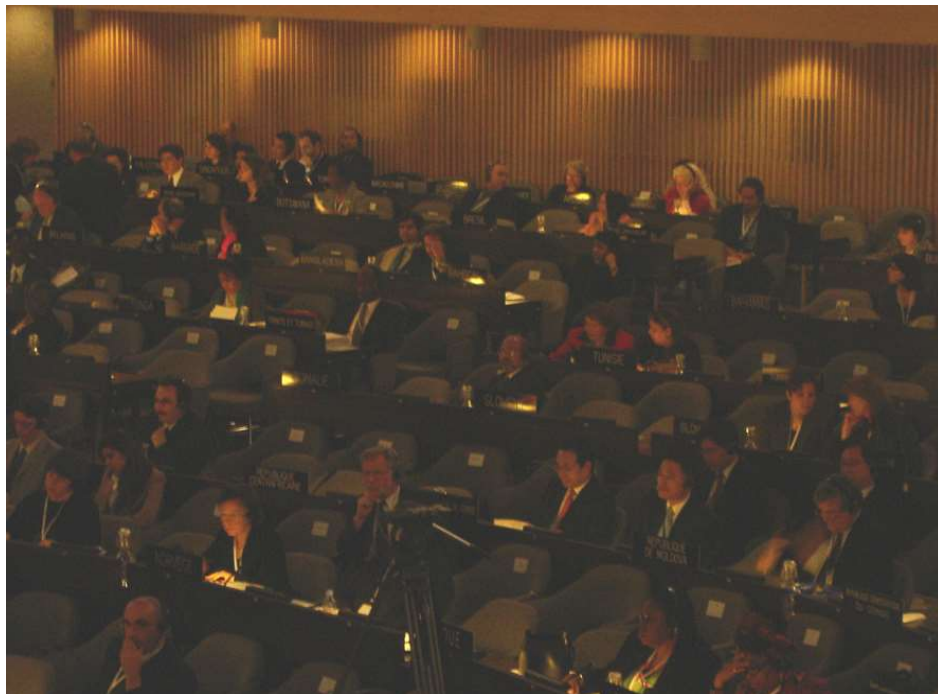
제33차 총회에서 수석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본회의 일반정책 토론에 참석중인 한국 대표단
(좌로부터 김종일 대표부 공사, 이상열 한위 사무총장, 김진표 부총리,
유지완 사무관, 주철기 주프랑스 대사)



문화분과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과 관련 투표 중인 회원국 대표들



문화분과에 참석 중인 한국 대표단 (우측 하단부: 주철기 주프랑스 대사, 조기중 대표부 서기관, 김종일 대표부 공사, 허권 문화팀장)



문화분과에 참가 중인 김문환 서울대교수(뒤)와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앞)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가 중인 이상열 한위 사무총장



커뮤니케이션 분과에 참가 중인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좌)
와 김승윤 한위 커뮤니케이션팀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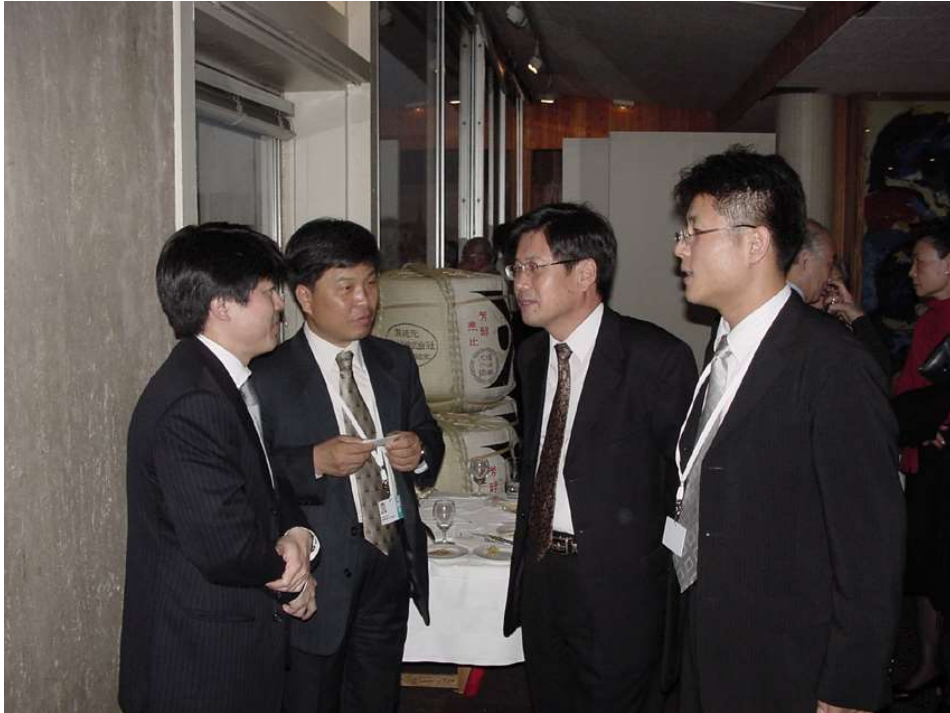
문화분과에 참가 중인 김문환 서울대교수(뒤)와 서명선 여성개발원장(앞)



Mr. Alisher Ikramov 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 국가위원회 사무총장과
MOU 체결 후 악수하고 있는 강대근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유네스코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 중인 성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앞)과 이승미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선임담당(뒤)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주최 리셉션에 참석 중인 한국대표단 (좌로부터 Mr. Ryoji Ito
NHK 파리 지국장, 정우탁 한위 교육팀장, 김종일 대표부 공사, 윤병순 한위 기획팀장)



유네스코 본부 본회의장 앞에서 (좌로부터 윤병순 한위 기획팀장,
전진성 한위 기획팀원, 이상열 한위 사무총장, 정우탁 한위 교육팀장)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양정현 YWCA 간사(좌에서 두 번째)와 한명희 연세대 재학생(우에서 첫 번째)



유네스코 본부건물 전경